

Digilo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2013. 5.3(금) ~ 5.12(일)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영화의전당, 공간소극장,
액터스소극장,
광안리 BIPAF ZON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ww.bipaf.org



46
46th Anniversary
BusanBank

함께 갈까요!

나눌수록 행복한 세상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마음
누구나 웃을 수 있는 행복
더불어 사는 세상을 향해
BS부산은행이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나눔으로 함께하는 행복한 금융

함께갈까요!  BS금융그룹
부산은행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치킨!

The Well-being Chicken

☆ 컬투치킨은
국내 최초 계육이력제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컬투치킨

Chicken & Beer

최적화된 가맹점 80개 돌파

☆ 컬투치킨은
급급하게 늘어나가는 다른 프랜차이즈와는
다릅니다. 가맹점의 수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합리적인 비용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
가맹점을 오픈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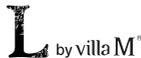


가맹문의
080-999-9282 (주)컬투에프앤비

2013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협찬사



누네빛안과



2013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행사개요 The Outline of the 10th BIPAF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 기간 2013. 5. 3(금)~12(일), 10일간
-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중·소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경성대 콘서트홀·예노소극장, 공간소극장, 액터스소극장, 광안리 BIPAF ZONE
- 콘셉트 **Digilo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 참여 규모 국외 7작품, 국내 3작품 초청 / 국내 17개 작품 경연 / 야외 공연 19개
- 참여 국가 대만, 스페인, 영국, 오스트리아, 일본, 프랑스, 한국(7개국)
- 축제 구성
 - 개·폐막 행사 : 식전 축하 공연, 개·폐막 공연, 개막 리셉션
 - 개막 공연 : 스페인 <파가니니> _ 5. 3(금) 19시,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폐막 공연 : 오스트리아 <유령> _ 5.12(일) 18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공연 프로그램
 - BIPAF CONCEPT_** BIPAF CONCEPT(Digilo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에 부합하는 작품
 - BIPAF OPEN_** BIPAF CONCEPT 이외 초청 작품
 - Go, Avignon OFF_** 2014년 아비뇽 OFF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국내 17개 극단들이 벌이는 열띤 경연
 - 야외 공연_** 광안리 BIPAF ZONE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장르의 야외 초청 공연
- 참여 프로그램
 - BIPAF ZONE, 10분 연극제, 관객과의 대화, BIPAF 강연회(Digitaltalk), BIPAF 워크숍,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여름),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겨울)
- 주최 부산광역시
- 주관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보조사업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 Duration 2013 May 3rd(Fri)~May 12th (Sun) <10 days>
- Venues Busan Cultural Center(Main/Medium/Small Hall), Busan Cinema Center(Hanuulyeon Theater), Kyungsoong University(Concert Hall/Yeno Hall), Gonggan Theater, Actors Theater, Gwangnanri Beach BIPAF ZONE
- CONCEPT **Digilog**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 Participation 7 Performances from overseas, 3 Performances from Korea / 17 Korean Performances for Competition / 19 Outdoor Performances
- Participating Countries Taiwan, Spain, UK, Austria, Japan, France, Korea
- Festival Construction
 - Opening & Closing Ceremony : Opening & Closing Performance, Opening Reception**
 - Opening Performance : Spain <Pagagnini> May 3rd (Fri) 19:00, Main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 Closing Performance : Austria <Apparition> May 12th (Sun) 18:00,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 Performance Program**
 - BIPAF CONCEPT_** The performanc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Digilog)
 - BIPAF OPEN_** The performances fall outside of the concept
 - Go, Avignon OFF_** The performance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be selected for Festival d'Avignon OFF 2014.
 - Outdoor Performance_** The performances for citizens with various genres of outdoor performances
 - Joinable Program**
 - BIPAF ZONE, Q&A Session, BIPAF Lecture(Digitaltalk), 10 Minute Open Plays, BIPAF Workshop, Busan Theatre Camp for Youth(Summer), Busan Theatre Camp for Children(Winter)
- Host Busan Metropolitan City
- Organizer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 Suppor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rts Council Korea
 - ※ Supported by Culture Promotion Grants of Arts Council Korea

07 **콘셉트** Concept

08 **인사말** Greetings

10 **축사** Congratulations

13 **함께하는 축제들** Festivals with BIPAF

15 **개막작 / 파가니니** Opening Performance / Pagagmini

17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BIPAF CONCEPT

18 **유령** Apparition

20 **시네마테크** Cinématique

22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24 **일그러진 도시** Distortion City

26 **NAÏF** NAÏF

28 **도우겐의 슬픈 연가** DOGEN AIKA

30 **Chapter 6 : 인생** Chapter 6 : Life

33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BIPAF OPEN

34 **운악** Unak

36 **Ugly Man** Ugly Man

38 **공연장 안내 및 티켓 안내**
Venue Guide & Ticket Guide

40 **공연 일정표** Performance Schedule

42 **셔틀버스 안내** Shuttle Guide

43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Go, 아비뇽OFF Go, Avignon OFF

44 **나는 처용** Cheo Yong

45 **꽃 담** The Wall of Flower

46 **어떤 사건** An Absurdity of Things

47 **쥐** The Mouse

48 **상대방의 자리** The place of the other

49 **네가 그러는 동안에** While you are doing so

50 **짐은 임금ियो, 그대들은 황제이다**
I'm the King, but the Emperor is you

51 **별** Star

52 **구름에 걸린 구두** Shoes hanging over clouds

53 **붉은 장미의 탱고** Tango of red roses

54 **요한 프란츠** Johann Franz (Original : Woyzeck)

55 **이야기 하루** Ha-Lu

56 **Yom** Yom

57 **반호프 - 시즌2** Bahnhof Season2

58 **꿈을 파는 가게 신문 공주** The dreaming is odyssey

59 **머무르다** Stay

60 **경련** Convulsion

61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야외공연 Outdoor Performance

68 **BIPAF ZONE**

69 참여프로그램 Joinable Program

70 **10분 연극제** '10 Minute Open Plays'

71 **BIPAF 워크숍** BIPAF Workshop

72 **관객과의 대화** Q&A Session
BIPAF 강연회-디지털 BIPAF Lecture Digitalk

73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
Busan Theatre Camp for Youth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
Busan Theatre Camp for Children

74 **BIPAF 후원회** BIPAF Sponsorship Association

75 **조직위원회** Organizing Committee

76 **사무국, 자원봉사자 & 어린이 홍보대사**
BIPAF Office, Volunteer & Young Ambassador

Digilog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은 형식과 내용 모두를 아우르는 만남을 의미한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디지털(Digital)이라는 것에는 모두 동의 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이 기반이 되어 만들어진 오늘의 사회 환경은 우리들의 의식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았다.

공연 예술도 예외는 아니다. 공연예술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Analog)에 가깝다. 디지털 기술과 공연예술의 만남은 한편으로는 숙명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지털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 또한 공연예술의 표현 영역을 한층 넓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술 아래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인간의 몸과 디지털 기술의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섰다. 우리는 이 만남을 통해 탄생한 공연예술을 디지로그(digilog)

예술이라 부르고자 한다. 올해의 콘셉트 작품이 공연예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바로미터가 되기를 바란다.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means embracing both form and content. It is not too much say that digital is a dominant theme of our era. Today's social environment based on digital technology which makes everything possible has changed our awareness.

Performing arts are not an exception. Performing arts are fundamentally close to analog. A meeting of digital technology and performance art is inevitable but at the same time it may be dangerous. However, it is obvious that digital technology is not optional but essential because it has potential to broaden and diversify the scope of performing arts.

In an era of digital technology, we are now able to appreciate performances created through a meeting of analog human bodies and digital technology. We desire to call performing arts created through this meeting 'digilog art'. We hope this year's representative performance will be a barometer to assess changes of performing arts.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장

허 남 식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President Huh Namsik

부산의 봄을 대표하는 최고의 공연예술축제인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004년 처음 개최되어 매년 다른 콘셉트로 연극의 다양성을 보여주며,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국제행사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이하는 의미 깊은 해로 그동안 시민 여러분이 아낌없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시민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부산국제연극제의 올해 컨셉인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에 부합하는 현대 연극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작품, 역대 연극제 초청 작품 중 시민들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연극제 추천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참여의 장을 더욱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국내 작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경연제 프로그램인 "Go, Avignon OFF"를 더욱 확대하는 등 국내 작품의 해외 프로모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틀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아끼지 않으신 허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연극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예술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10일 동안 펼쳐지는 화려한 연극의 향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부산국제연극제가 세계적인 연극축제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연극제가 지난 10년을 기반으로 하여 부산국제연극제 만의 전통과 색깔로 명실상부한 국제공연예술축제로 우뚝 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ngratulations on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e best performing arts festival representing the spring of Busan!

Sinc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as first held in 2004, it has demonstrated diversity of performing arts with different concepts every year and developed as an international event with popularity from Busan residents.

In particular, celebrating the 10th anniversary this year, we have prepared more diverse and abundant programs than the previous years in return for constant support from Busan residents to make a festival together with people and to enjoy it together.

First, we allow more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festival by staging plays which show the trend of modern theater and which corresponds to "Digilog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the concept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his year, the most popular plays among all invited plays for the past years, and recommended plays. Also, we are building a foundation to promote domestic plays overseas by expanding "Go, Avignon OFF", a competition program introduced last year to find a way for competitive domestic plays to overseas markets.

I would like to convey appreciation and encouragement to all theatrical people including Heo, Eun, the president of the festival who spared no effort to develop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lso, I appreciate unstinted attention and interest about local arts from Busan residents. I hope you will enjoy a feast of splendid plays for the next 10 days. I would appreciate if you continuously suppor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o become a world-class performing arts festival. I hop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ll be truly one of the best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th its unique tradition and color for the past 10 years. Thank you.

Huh Namsik

올해도 어김없이 부산국제연극제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국제연극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4년 부산 연극인의 뜻과 함께하여 시작된 축제가 열 돌을 맞이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산시민의 열띤 호응과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도시의 문화적 성숙도는 공연예술이 얼마나 보편적인 문화생활의 일부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가능 됩니다. 이미 세계의 일류도시가 그 증거를 보여 왔습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부산을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드는 중요한 징표가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은 정리하고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부산의 최고 축제로 한 단계 나아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완벽을 향한 노력은 계속 되어 왔고 앞으로 더 한층 노력 할 것입니다. 올해는 1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와 우리 시대 공연예술의 현상을 조망하는 Digilog(디지로그,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공연 무대를 마련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공연예술 축제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도움 주신 국내외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과 허남식 부산시장님, 김동규 명예 집행위원장님, 부산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특히 10년간 한결 같이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관객 여러분이 바로 이 축제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ll be held this year as usual. However, this year's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has a special meaning. This year is to celebrate the 10th anniversary since Busan theatrical people started the first festival in 2004. This would not exist if it were not for interest and support from Busan residents. Cultural maturity of a city is estimated depending on how performing arts is part of its culture as many world-class cities have demonstrated i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hows potential for providing a milestone to make Busan the best cultural city.

Putting the past 10 years behind, the festival has now reached a milestone to step forward to be the best festival in a cultural city, Busan. In celebration with the 10th anniversary, we have prepared diverse events and a stage of digilog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to view performing arts of our era. While you enjoy these, please be owners of this enjoyable performing arts festival.

Once again, I would like to convey appreciation to all parties concerned in Korea and overseas, the mayor Hur, Nam-Sik, the honorary president of festival execution committee Kim, Dong-Kyu, all parties concerned in Busan.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applaud the audience who have stayed with us for the last 10 years. The audience is the owner of this festival. Thank you.

Huh Eun



부산국제연극제 집행위원장

허 은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mmittee Inc. Festival Director Huh Eun

허 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진룡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Yoo Jinryong

푸른 바다가 반짝이는 봄날의 부산에서, 2013년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지난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회째를 맞습니다. 10년 동안 변함 없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매해 다양한 공연 예술을 선보여 주신 부산국제연극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에서는 'Digilog(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를 콘셉트로 하여 첨단 기술이 쏟아지는 오늘날의 환경 속에서의 공연 예술의 미래를 관객들과 함께 살펴보는 동시에 1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연극제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국제연극제가 전 세계 문화 예술인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 10년을 넘어서서 무한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름다운 5월, 향기처럼 번져가는 문화예술의 힘으로 세계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세계적 인 문화교류의 장을 통해 문화의 감동이 널리 퍼지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부산 국제연극제에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위해 애써 주신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e sincerely congratulate that 2013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held in Busan of springtime with the glittering blue ocean.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began in 2004, and now it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We thank everyone involved in this event who presented us with various performance arts every year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for those 10 years.

At this time, we have taken on the concept of 'Digilog (combination of digital and analog)' and examine the future of performance arts in today's environment which is filled with cutting-edge technology, and also repay the love you sent to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seek its future directions. We wish tha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becomes the site of festival with people of culture and art all over the world, and achieve endless growth beyond the past 10 years.

This beautiful May, we hope that the impact of culture reaches out through this site of global cultural exchange by exchanging and communicating with the world through the power of cultural arts that spread like scents, and we ask of the citizens for love and support for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Finally, we express our deep gratitude to all associates including th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Organization Committee and the city of Busan who were devoted to the promotion of this festival.

연극예술의 발전을 위해 힘써온 부산국제연극제가 올해 열 번째 문을 엽니다. 부산국제연극제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산의 이미지에 걸맞게 연극 및 다양한 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이바지해왔으며, 한국연극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며 자리매김해왔습니다. 다채로운 꽃송이가 만발하는 좋은 계절에 펼쳐지는 2013년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는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만남 즉, 'Digilog(디지털로그)'라는 콘셉트로 한국을 포함한 7개국이 참가하여 우수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늘날 디지털과 아날로그는 상호 발전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아날로그'에 가까운 연극은 '디지털'이라는 첨단기술과 만나며 무대 위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며, 공연예술의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이 연극 무대의 좋은 자극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닌 적당한 가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올해의 부산국제연극제가 'Digilog(디지털로그)' 연극의 현 위치를 소개함은 물론이거니와 미래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뜻 깊은 축제가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세계를 이어주며, 넓은 국제마당에 연극을 알리는 자리에 부산국제연극제가 선두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싱그러운 봄바람처럼 부산국제연극제 역시 함께하는 모든 이에게 신선한 기운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더욱 융성하기를 기원합니다.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hich has worked hard to develop performing arts is opening the 10th door this year. Busan has contributed to expand the base for theater and diverse arts appropriately for its identity of pursuing a cultural city and has built its reputation by letting the world know the status of Korean theater. Congratulations on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2013 in the perfect season with blooming flowers.

Korea and seven countries participate in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and present excellent plays with the concept of 'digilog', that is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Today digital and analog are in a position of mutual development. Theater which is close to 'analog' met cutting-edge 'digital' technology, brought rapid development to the stage, and expanded the scope of performing arts. However, in order to make digital technology a good stimulant for theater, not unconditional acceptance but appropriate adjustment is required. In this contex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festival not only by introducing the current status of 'digilog' theater but by presenting the right direction for the future.

It is proudful tha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connects Korea to the world and plays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ater on an international stage. We hope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ll give a cool breeze to everyone just like refreshing spring breezes. We would appreciate if many people could honor the festival with their presence.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e wish for its prosperity in the future.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윤봉구

Director of the National
Theatre Association of Korea
Yoon Bonggu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연합회 회장
송영명

신록의 내음이 가득한 오월에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가 개최되는 것을 부산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부산국제연극제의 메인콘셉트는 "Digilog(디지로그)-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으로 아날로그적인 공연예술과 우리시대의 화두인 디지털의 만남을 통해 공연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볼거리와 시민 참여 행사 및 연극 전문가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확대해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노력이 눈에 띕니다.

연극은 가장 인간적인 예술로 타자를 이해하고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부산국제연극제가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감성을 충족시키고 지역연극계의 활성화는 물론, 세계로 뻗어나가는 연극제가 되길 기원하면서 지역연극인은 물론 부산시민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행사를 추진하느라 노고 하신 허은 집행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We are truly glad alongside the citizens of Busan that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will be held this May when it is full of the fresh green scent.

Celebrating its 10th anniversary this year,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et the main concept to be "Digilog - the combination of digital and analog" to suggest a new trend in performance arts through the encounter of analog performance art and digital, which is the hot topic of our time. Moreover, it is notable for the efforts to establish itself as a citizen-participating festival which is made and enjoyed by citizens themselves through citizen-participating events and expanded site of exchange with theatre experts besides numerous attractions.

Theatre is the most human form of art that has the power to understand others and draw communication and harmony. We wish that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satisfies the cultural need and sensibility of citizens and revitalizes the local theatre scene while also stepping up to be the global level, and ask for support and participation not only of those of local theatre, but also of Busan citizens. Moreover, we express a deep gratitude and congratulation to Eun Heo, the head of execution committee and all other staff who have put in much effort in promotion of this event.

Song Youngmy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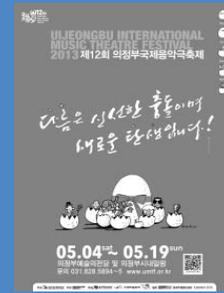


안산국제거리극축제

2013 Ansan Street Arts Festival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

일시 **5.3(금)~5.5(일)**
 장소 **안산문화광장**(4호선 중앙역, 고잔역)
 내용 7개국 40개팀 참가, ASAFRINGE, 기타 부대행사
 주최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주관 (재)안산문화재단
 문의 <http://www.ansanfest.com> / 031-481-0530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Uijeongbu International Music Theatre Festival 2013

"Reverse Remix Reborn & Refresh"

일시 **5.4(토)~5.19(일)**
 장소 **의정부예술의전당 및 의정부 시내 일원**
 내용 초청공연, 자체제작 공연, 특별공연, 전시 및 학술심포지엄 등 부대행사
 주최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주관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집행위원회
 문의 <http://www.umtf.or.kr> / 031-828-5894~5



부산콘텐츠마켓

7th International Busan Contents Market 2013

"New Contents, New Network"

일시 **5.9(목)~5.11(토)**
 장소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내용 BCM MARKET / BCM FORUM / BCM PLAZA
 주최, 주관 (사)부산콘텐츠마켓조직위원회
 문의 <http://www.ibcm.tv> / 051-747-6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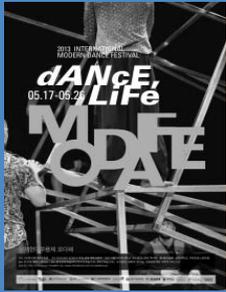
춘천국제연극제

Chuncheon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

"대화가 필요해"

일시 **5.11(토)~5.18(토)**
 장소 **춘천 물빛극장, 볼내극장, 춘천시내 일원**
 내용 4개국 8개 작품, 기타 야외 행사
 주최 (사)춘천국제연극제, 춘천MBC
 주관 춘천국제연극제운영위원회
 문의 <http://www.citf.or.kr> / 033-241-4345

함께하는 축제들 Festivals with BIPAF



국제현대무용제

2013 International Modern Dance Festival

"Dance, Life"

일시 5.17(금)~5.26(일)

장소 한국공연예술센터, 낙산공원, 해화역 전시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 세미나실

내용 해외 초청작, 모다페 제작작품, 국내초청공연, SPARK PLACE, 기타 부대행사

주최 (사)한국현대무용협회

주관 MODAFE KOREA

문의 <http://www.modafe.org> / 02-765-5352



춘천마임축제

2013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태초에 몸이 있었다"

일시 5.19(일)~5.26(일)

장소 강원 춘천시 일원(중앙로, 춘천문화예술회관, 어린이회관, 수변공원 등)

내용 애수라장, 미친곰요일, 도깨비난장, 도깨비어워드, 기획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주최 (사)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춘천MBC

주관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회

문의 <http://www.mimefestival.com> / 033-242-0585



수원화성국제연극제

The 17th Suwon Hwaseong Fortress Theatre Festival

일시 5.24(금)~5.28(화)

장소 화성행궁광장, KBS 수원아트홀, 수원시민소극장

내용 국내외 초청작, 시민연극축제, 시민희곡낭독프로그램, 시민공공예술프로젝트 등

주최 수원시

주관 (재)수원문화재단

문의 <http://www.suwontheatre.or.kr> / 031-290-3582



부산국제무용제

2013 Busan International Dance Festival

"춤, 바다를 열다"

일시 5.31(금)~6.4(화)

장소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 등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사)부산국제무용제조직위원회

문의 <http://www.bidf.kr> / 051-868-7881

파가니니 Pagagnini <개막작 Opening Performance>

스페인 / YLLANA Production Spain / YLLANA Production

5.3(금) 19시, 5.4(토) 18시 May 3rd(Fri) 19:00, May 4th(Sat) 18:00

관객과의 대화 : 5.4(토) 공연 후 Q&A Session : May 4th(Sat) After the performance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60분 / 8세 이상 60 MIN / Rated PG-7



유령 Apparition <폐막작 Closing Performance>

오스트리아 / Klaus Obermaier Austria / Klaus Obermaier

5.11(토) ~ 12(일) 18시 May 11th(Sat) ~ 12th(Sun) 18:00

관객과의 대화 : 5.11(토) 공연 후 Q&A Session : May 11th(Sat) After the performance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60분 / 12세 이상 60MIN / Rated PG-11



기술과 신체가 만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것을 목격했다!

“소프트웨어가 파트너라면, 어떤 안무가 탄생할까?,” “가상의 이미지와 실제의 이미지는 동일한 공간에 존재할 수 있을까?” <유령>은 이러한 물음에서부터 출발한 미디어 퍼포먼스이다. 라이브 공연과 사운드가 프로그램으로 투영되어 실시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양방향 시스템을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무대 기술에 도전하였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유령>은 디지털 시대 관객에게 새로운 공연 예술의 볼거리를 제시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예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technology meets human bodies, we witness something new!

What choreography emerges when software is your partner? When virtual and actual image space share the same physics? Where everything that moves on the stage is both interactive and independent? And any form, dancing or still, can be transformed into a kinetic projection surface? With these questions as the starting point <Apparition> takes interactive performance to another level through the creation of a unique stage work integrating live performance, sound, projection and an interactive system comprising real-time image generation and computer vision.

- 모든 아름다움이 설치 된 마법, 마술과도 같은 여행을 선사한다. -(LE MONDE)
A setting of whole beauty, 'un tour de magie', a trip of magic. -(LE MONDE)
- 정확하고도 활기찬 공연은 갈채를 불러왔다. -(THE NEW YORK TIMES)
precise, vigorous performance brought a storm of applause afterward. -(THE NEW YORK TIMES)

Klaus Obermaier

Klaus Obermaier는 공연 예술, 음악, 연극, 뉴미디어 분야를 넘나드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안무가, 작곡가이다. 혁신적인 작품을 통해 비평가와 관객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의 미디어 퍼포먼스를 비롯한 예술 작품은 유럽, 아시아, 북미 및 남미, 호주 전역의 축제와 극장에서 상연 되었다. 2006년부터는 비엔나를 비롯한 유럽 대학 등지에서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예술 및 총괄 Klaus Obermaier 기술 감독 Alexander Brandl, Luis Miguel Girao
출연 Robert Tannion, Desiree Kongerod

Artistic Director, Creator, Composer, Visuals Klaus Obermaier
Technical Director Alexander Brandl, Luis Miguel Girao Cast Robert Tannion, Desiree Kongerod

시네마띠크 Cinématique

프랑스 / Adrien M/Claire B France / Adrien M/Claire B

5.4(토) ~ 5.5(일) 18시 May 4th(Sat) ~ 5th(Sun) 18:00

관객과의 대화 : 5.4(토) 공연 후 Q&A Session : May 4th(Sat) After the performance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60분 / 12세 이상 60MIN / Rated PG-11



지금, 무대 위 당신의 상상력을 목격하라!

유쾌한 감성, 풍부한 상상력으로 펼쳐는 디지털 퍼포먼스 <시네마띠크>

기술은 차가운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 작품을 주목하라. <시네마띠크>는 차갑기만 한 기술에 따뜻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무대를 살아 움직이는 공간으로 바꿔놓는다. 선, 점, 평면에 표현되는 디지털 객체, 직조, 움직임 등으로 말이다. 모든 상상은 자유로운 움직임을 통해 나타나고, 관객들에게 잊었던 순수한 욕망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두 무용수의 퍼포먼스를 통해, 당신은 어릴 적 동심을 목격하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시공간 여행을 떠나게 될 것이다.

Now witness your imagination on the stage!

<Cinématique>, a digital performance with pleasant sensibility and abundant imagination

Do you think technology is something cold? Then, pay attention to this performance. <Cinématique> makes its stage come to life by injecting warm imagination into cold technology. Through two dancers' performance, you will start an amazing and beautiful journey of space and time to find the innocence of childhood.

• 모든 미스터리가 그의 작품에서 베일을 벗는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당신을 아름다운 세계로 안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LE MONDE)

Every mystery unveiled in his piece, in which a dancer moves on shifting ground, gives the key to a beautiful world. -(LE MONDE)

Adrien M / Claire B

Adrien Mondot와 Claire Bardainne이 만든 프로젝트 극단이며, 극단 이름은 이들의 이름에서 따왔다. 2005년 설립되어 예술과 디지털 아트를 결합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상상과 현실 사이의 교차로'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다양한 디지털 실험을 선보인다.

예술감독 Adrien Mondot 출연 Satchie Noro

Artistic co-director Adrien Mondot Cast Satchie Noro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한국 / 극단 하땅세 Korea / Haddangse Theatre

5.4(토) ~ 5.5(일) 14시, 17시(1일 2회) May 4th(Sat) ~ 5th(Sun) 14:00, 17:00 (2 times a day)

관객과의 대화 : 5.5(일) 14시 공연후 Q&A Session : May 5th(Sun) After the 1st performance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60분 / 전체 관람가 60MIN / Rated PG-ALL



70센티미터의 어항 속 작은 세상, 배우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작은 어항 속의 거대한 세계
제17회 서울어린이연극상 최우수작품상, 최고인기상, 특별부문상 수상
2009년 김천전국가족연극제 대상, 무대미술상 수상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라는 제목 그대로 세상에서 제일 작은 크기의 주인공을 만나 볼 수 있다. 공연 무대는 불과 70센티미터 정도의 평범한 어항이다. 잘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세계는 카메라를 통하여 무대 뒤의 커다란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난다. 관객들은 마치 우물가에 있는 듯, 개구리 왕자와 실감나는 우물 속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그림형제의 동화 〈개구리 왕자〉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지혜와 끈기로 상황을 슬기롭게 풀어 헤쳐 나가는 개구리 왕자와 공주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배우와 인형, 영상이 어우러져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물속 세계의 아름다움은 물론, 개구리 왕자와 공주에게서 순수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것이다.

A small world in a 70-centimeter fish tank!!

A massive world in a small fish tank comes to life through the fingertips of actors and actresses.

This is based in 〈The Frog Prince〉, Grimm's fairy tales. This performance shows a story of a frog prince and a frog princess who solve problems with their wisdom and patience. As in the title,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you will see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With actors, actresses, dolls, and images, this will show children and parents beauty of a small underwater world that we rarely see and make them feel pure love from the frog prince and frog princess.

- 새로운 무대 연출과 아이들의 마음을 훔쳐갈 마술 같은 특수 효과를 접목시켰다. 카메라의 이동에 따라서 공간이 계속 바뀌니, 마치 한편의 만화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 전 객원기자 최성문(한국연극) 2008. 2월호
- 골목, 장터에서 보았을법한 허술한 물건들을 변형시켜 아이들의 놀이 경험과 눈높이에서 상상력을 일으키는 구석구석 숨어있는 아이디어가 참신하다. - 장성희(연극평론가, 서울예대 교수)

극단 하땅세

〈봇바람〉, 〈하땅세〉, 〈싱크로나이즈〉와 같은 개성 있는 작품들을 연달아 발표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국내 유수의 연극제에서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을 휩쓰는 등 창작 역량을 나날이 극대화하고 있는 극단이다. 무한한 지적 호기심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진지한 미적 창조 행위와 관념의 모험을 추구한다. 극단의 명칭인 하땅세의 뜻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굽어보고, 세상을 살펴본다'이며, 이를 본받아 '하늘부터 땅 끝까지 세계 간다'는 정신으로 작업하고 있다.

연출 윤시중 조연출 조승연 무대감독 이길준 기획 김휘연 출연 조병욱, 조성우, 민라헬, 전진아

Director Yoon Si Jung Assistant Director Jo Seung Yeon Stage Manager Lee Gil Jun
Production Kim Hui Yeon Cast Jo Byong Wook, Jo Seong Woo, Min Ra Hel, Jeon Jin A

일그러진 도시 Distortion City

대만 / Möbius Strip Theatre Taiwan / Möbius Strip Theatre

5.5(일) 18시, 5.6(월) ~ 5.7(화) 20시 May 5th(Sun) 18:00, May 6th(Mon) ~ 7th(Tue) 20:00

관객과의 대화 : 5.5(일) 공연 후 Q&A Session : May 5th(Sun) After the performance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Yeno Small Theater of Kyungsoo University

60분 / 12세 이상 60MIN / Rated PG-11



기술과 전통의 절묘한 크로스 오버! 우리 시대, 기술은 어떤 의미인가? 새로운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일그러진 도시>

<일그러진 도시>는 디지털 아트, 전자 음악, 드럼 음악, 그리고 대만 고유의 노래와 춤이 어우러진 예술적 결합이다. 이 작품은 기술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현대 사회에 대한 반향으로, 움츠러들었거나 등한시된 인간성의 흔적을 일깨우고자 한다. 넘쳐흐르는 전자제품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문화와 미적인 행위로 영혼을 닦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작품은 말한다. 단순한 듯 보이는 투영 기법이 무대를 매혹적인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따스하고 강렬한 전통적인 아시아 스타일의 북 공연과 대만 고유의 노래가 영혼을 일깨운다.

Felicitous crossover of technology and tradition! In our era, what does technology mean? <Distortion City> questions about new beauty.

<Distortion City> is the artistic combination of digital art, electronic music, drum music, and the indigenous song-and-dance in Taiwan. As a response to the modern society which is fully supported by technology, the work intends to remind us of the shrinking or the unnoticed tracks of humanity. Living a life overloaded with electronic commodities, we need to polish our souls with culture and beauty. The simple projection technique turns the stage into a dazzling performance space, while the traditional Asian style of drum performance and the Taiwanese aboriginal singing, which is warm and powerful, arouse the soul.

Möbius Strip Theatre

<Möbius Strip Theatre (MST)>은 원형 모양으로 끝이 없는 “뫼비우스의 띠”라는 아이디어에 착안하여 2005년에 설립되었다. 서로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 여러 영역을 통합시켜나가는 잠재력을 나타내는 독창적인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공연 안에서 극, 신체적 표현, 영적 표현, 멀티미디어의 사용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선보인다.

감독 Jin-Yao Lin 무대감독 Ting-Tsung Ho 멀티미디어 총괄 Chih-Hsin Ho 책임 프로듀서 Shun-Ya Chang
출연 Dondon Hounwn, Chih-Lin Huang, Yung-Huai Huang, Chia-Chien Lu

Director Jin-Yao Lin Stage Manager Ting-Tsung Ho Multimedia Executor Chih-Hsin Ho
Executive Producer Shun-Ya Chang Cast Dondon Hounwn, Chih-Lin Huang, Yung-Huai Huang,
Chia-Chien Lu

스페인 / Toti Toronell Spain / Toti Toronell

5.7(화) ~ 5.8(수) 20시 May 7th(Tue), May 8th(Wed) 20:00

관객과의 대화 : 5.7(화) 공연 후 Q&A Session : May 7th(Tue) After the performance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70분 / 8세 이상 70MIN / Rated PG-7

특별야외공연 Special Showcase
 〈Not Yet a Show〉
 5.6(월) 20:40 광안리 BIPAF ZONE
 May 6th(Mon) 20:40 Gwanganri beach BIPAF ZONE



순도 100%의 웃음을 선사합니다

광대 전문 배우 Toti Toronell의 환상적 연기와 애니메이션 기술의 절묘한 조화

텅 빈 무대 위 광대와 뮤지션이 등장한다. 그 다음은? 광대와 뮤지션의 재치 넘치는 쇼가 펼쳐진다. 그러나 단순한 광대 쇼는 아니다. 광대와 뮤지션이 종횡무진 하는 무대 위에 또 하나의 광대가 스크린을 통해 등장한다. 둘은 대화도 나누고 서로 쫓기도 하며, 관객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넓힌다. 광대 전문 배우 Toti Toronell이 펼치는 위트 넘치는 연기와 함께 펼쳐지는 음악, 그리고 애니메이션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관객에게 순수한 웃음을 선사한다. 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아무 생각 없이 극에 빠져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순도 100%의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We present 100% pure laughter!

A great combination of a clown actor, Toti Toronell's fantastic acting and animation technology.

On an empty stage, a clown and a musician appear. What's the next? The clown and the musician present a witty show. When the clown and the musician play all over the stage, another clown appears on a screen. While they talk to each other and they chase after each other, they expand imagination of the audience infinitely. The clown actor, Toti Toronell presents pure laughter with his witty acting in combination with music and animation technology. When you follow them, you will find yourself being immersed in the play without even realizing it. This performance will present 100% pure laughter and enjoyment to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 나에게 광대는 단순한 웃음거리 이상으로, 감정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Toti의 공연이 정확히 그렇다. -Carme Escalles, 〈El Periódico〉

To me, the work of the clown is the emotional dialogue, more than just the laughing part. Toti's show is like it. -Carme Escalles, 〈El Periódico〉

Toti Toronell

1997년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Toti Toronell과 Pep Massanet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후 극단의 작품들은 스페인 카탈로니아에서 600회 이상 무대에 올라가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간 한국의 여러 공연예술축제에 초청되어 한국 관객과도 교감이 뛰어난 극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남녀노소, 문화적 배경과 인종을 초월하는 단순하고도 순수한 웃음 코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다. 앞으로도 새로운 스타일의 프로젝트 공연을 통해 그들의 웃음을 전파하고자 한다.

오디오 비주얼 디자인 David Cid 음악 감독 Albert Dondarza 조명 및 음향 Nino Costa
 무대 감독 Jordi Borràs 캐릭터 디자인 Sagar Formies 애니메이션 Full Animació
 의상 Carles Solé 세트 디자인 El Soldadet de Plom 그래픽 디자인 Toti Toronell
 제작 Produccions Trapa 출연 Toti Toronell, Albert Dondarza

Audiovisual Design David Cid Music Albert Dondarza Light and Sound Nino Costa
 Stage Manager Jordi Borràs Character Design Sagar Formies Animations Full Animació
 Wardrobe Carles Solé Set Design El Soldadet de Plom Graphic Design Toti Toronell
 Production Produccions Trapa Cast Toti Toronell, Albert Dondarza

도우겐의 슬픈 연가 DOGEN AIKA



일본 / 신주쿠양산박 Japan / Shinjuku Ryozanpaku

5.8(수) ~ 10(금) 19시 May 8th(Wed) ~ 10th(Fri) 19:00

관객과의 대화 : 5.8(수) 공연 후 Q&A Session : May 8th(Wed) After the performance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Haneulye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160분 / 12세 이상 160MIN / Rated PG-11



일본 현대 연극계의 기수 고바야시 코지와 김수진 연출의 만남! 이국적 무대 위 애절한 사랑 이야기, 원작의 감동을 느껴보세요.

〈도우겐의 슬픈 연가〉는 일본 현대 연극의 최고 작가로 손꼽히는 고바야시 코지가 2002년도에 10개월간 요미우리신문에 연재한 원작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고, 신주쿠양산박의 김수진 연출이 만나 탄생한 작품이다. 현세에 인연을 맺지 못하고 헤어져야만 하는 두 남녀의 애달픈 사랑 이야기로, 괴기스러운 영령이 현세와 공존하는, 시공을 초월한 기묘한 세계가 등장한다.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에서 펼쳐질 〈도우겐의 슬픈 연가〉는 원작의 요소들을 최대한 살려 공연 될 예정이다. 에도시대를 배경으로 인간의 어두운 욕망과 비극적 운명의 서사시를 펼쳐 보이는 〈도우겐의 슬픈 연가〉의 기묘한 세계로 관객 여러분을 초대한다.

**A meeting of Kobayashi, Koji, a leader in Japanese modern theater and Director Kim Sujin!
Feel the impression of the original, a sad love story on a exotic stage.**

〈DOGEN AIKA〉 is a heartrending story of a man and a woman who could not be together in this world and had to part ways. There is a strange world beyond time and space where eerie spirits exist. In the 10th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DOGEN AIKA〉 will be performed with an extended length and original details. We invite the audience to a strange.

신주쿠양산박

신주쿠양산박은 1987년, 재일교포 김수진을 대표로 일본 동경에서 결성되었다. '신주쿠양산박'이란 극단 이름은 중국 소설 '수호전'에서 유래하고 있으며, 혼탁한 세상에 대항하는 방식으로서의 '연극'을 택한 연극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다. 신주쿠양산박은 일본 연극계가 점차 잃어가고 있는 '이야기(로망스)의 복권을 추구하고 있으며, 역동적 무대와 다양한 연극적 실험을 통해 일본 연극계에서도 창조적 활력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일본 국내외의 연극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연출 김수진 작곡 및 음향 오누키 타카시 조명 이즈미 츠구오, 사이토 요시카츠, 노지헤 촬영 오스가 히로시 무대감독 다케하라 타카후미 제작 미후라 노부코 안무 오카와 타에코 기획 및 제작 이강선, 심재훈 번역 및 자막 김연미, 최강자, 임경희 제작지원 정민교, 김지혜

출연 이마무라 요시노, 마츠다 요지, 신 대기, 히로시마 코 조 박, 와타라이 쿠미코, 시바타 토시요키, 우에노 요코, 아마모토 타카요, 가토 료스케, 시마모토 카즈토, 아소 무기, 소메노 히로타카, 고바야시 요시나오, 젠바라 노리카즈, 구라타 토모미, 덴다 케이나, 미우라 신코, 마에다 나오키, 오카와 다에코

Director Kim Su Jin Music Onuki Takashi Lighting Izumi Tsuguo, Saito Yoshikatsu, No Ji Hye Video Osuga Hiroshi Stage Manager Takehara Takatumi Production Miura Nobuko Choreography Okawa Taeko Production Lee Gang Sun, Sim Jae Hoon Translation and Subtitles Kim Yeon Mi, Choi Kang Ja, Lim Kyung Hee Production Support Jung Min Gyo, Kim Ji Hye

Cast IMAMURA YOSHINO, MATSUDA YOJI, SHIN DAIKI, HIROSHIMA KO, CHO BAK, WATARAI KUMIKO, SHIBATA TOSHIYUKI, UENO YUKO, YAMAMOTO TAKAYO, KATO RYOSUKE, SHIMAMOTO KAZUTO, ASO MUGI, SOMENO HIROTAKE, KOBAYASHI YOSHINAO, ZENBARA NORIKAZU, KURATA TOMOMI, DENDA KEINA, MIURA SHINKO, MAEDA NAOKO, OKAWA TAEKO

Chapter 6: 인생 Chapter 6: Life

영국 / Anomic Multimedia Theatre UK / Anomic Multimedia Theatre

5.9(목) ~ 10(금) 20시, 11일(토) 18시 May 9th(Thu) ~ May 10th(Fri) 20:00, May 11th(Sat) 18:00

관객과의 대화 : 5.9(목) 공연 후 Q&A Session : May 9th(Thu) After the performance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Concert Hall of Kyungsoong University

80분 / 12세 이상 80MIN / Rated PG-11



오래된 이야기가 새로운 기술을 만나다,
죽음의 운명에 직면한 어린 소녀의 마음을 통해 떠나는 여행!

Anomic Multimedia Theatre의 새 작품 <Chapter 6: 인생>

멀티미디어를 통해 보다 흥미진진한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Anomic Multimedia Theatre의 새 작품 <Chapter 6: 인생>은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다. 죽음이라는 어둡고 무거운 운명에 맞닥뜨린 어린 소녀의 마음을 통해 관객들은 우정, 희망, 용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들을 멀티미디어를 통해 보다 색다르고 흥미진진하게 펼쳐 보이고자 한다. 이번 공연은 영국 초연 이후 아시아 첫 공연이다.

An old story meets new technology.

A new work of Anomic Multimedia Theatre, <Chapter 6: Life>

Anomic Multimedia Theatre shows exciting performances through multimedia and their new work, <Chapter 6: Life> describes a story about destiny. The audience will find new meanings of friendship, hope, forgiveness, and death through a little girl who faces dark and heavy destiny called death. They intend to express stories about life which anybody could have empathy with through multimedia in a unique and interesting way. This is the first performance in Asia since its premiere in the UK.

• 환상적이고 흥미진진하며, 정말 훌륭한 극단이다. -<ONFM Radio Station>

A fantastic and exciting production, really excellent. -<ONFM Radio Station>

Anomic Multimedia Theatre

라이브 무대에서 다양한 시각적, 청각적 장치들의 이용을 탐구하는 현대 행위 예술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작품에서는 스토리를 살려서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 신체, 목소리, 사운드 그리고 영상을 역동적으로 한데 녹이고자 하고 있으며, 청각적, 시각적 자극을 극대화하여 현대 사회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을 탐구한다. 폭넓게 사용되는 주류 기법과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극히 자극적이면서 빠르게 흘러가고 다양한 속성을 지닌 현대사회를 반영하는 라이브 공연 속으로 이 시대의 관객들을 초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연 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측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다양한 미디어의 창의적인 부분을 거부하기 보다는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한다.

예술감독 및 연출 Dan Shorten 기획 및 운영 Sasha Spasic 조명 Erno Aaltonen

애니메이션 Mafalda Cruz 의상 Helen Gibson

출연 Verena Schneider, Richard Causer, Marco Zingaro, Florence Leon, Lyndal Marwick

Artistic Director Dan Shorten(UK) Company Manager Sasha Spasic(UK)

Lighting Designer Erno Aaltonen(Finland) Animation Mafalda Cruz(Portugal)

Costume Helen Gibson(UK) Cast Verena Schneider(Germany), Richard Causer(UK), Marco Zingaro(Italy), Florence Leon(French-Chilean), Lyndal Marwick(Australia)

꿈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최고의 디자인을 선보이겠습니다.



이
년
의
가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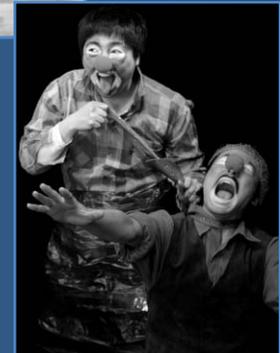
Tel. 051-758-9944
Fax 051-751-3893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BIPAF OPEN

부산국제연극제 CONCEPT 작품 이외의 해외 및 국내 초청작품

The performance fall outside of the concept of the 10th Annual BIPAF



운악 Unak

한국 / 극단 동녘 Korea / Dong Nyok

5.7(화) ~ 8(수) 20시 May 7th(Tue) ~ May 8th(Wed) 20:00

관객과의 대화 : 5.7(화) 공연 후 Q&A Session : May 7th(Tue) After the performance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90분 / 12세 이상 90MIN / Rated PG-11



2013 제31회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최우수연기상, 우수여자연기상 수상!
행운과 불행 그 사이에서 펼쳐지는 인간사 운명에 관한 이야기,
현진건의 소설 '운수좋은 날'이 새로운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나다.

시골벽적인 가운데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며 인력거를 끌고 또 끄는 김철지. 땀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곤 허리가 꺾여라 종일 손님을 맞고 또 맞는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때문에 비참했던 그가 돈 덕분에 실낱같은 희망을 만나는데……. 과연 그를 찾아오는 것은 행운인가, 불행인가? 원작 소설은 마누라의 죽음과 대면한 김철지의 모습으로 끝을 맺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운악>의 이야기가 탄생한다.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운명은 정녕 피할 수 없는 것인가? 가장 불운한 사나이 김철지와 운명의 한판 줄다리기가 시작된다.

2013 The 31st Busan Theatre Festival Grand Prix, Best Direction, Best Acting, Outstanding Actress!
The story of the human destiny between fortune and misfortune,
the novel of Jin-Geon Hyeon "A Lucky Day" is reinvented from a new perspective.

Mr. Kim draws rickshaw on and on with passengers midst noises. Covered with what can be sweat or rain, he is breaking his back, carrying passengers to passengers.

One day, despite being in misery for money, he finds a faint hope through money... is it fortune or misfortune that finds him? The original ends with Mr. Kim facing his wife's death, but the story of <Unak> is born right at this point. Is the enormous fate in front of us truly unavoidable? Now a game of tug of war begins for the unluckiest man, Mr. Kim, against destiny.

• <운악>이 토대로 하고 있는 현진건의 단편소설 '운수 좋은 날'은 사실 그냥 아주 작은 모티브에 불과하다. 핵심은 그 소설 안에 있는, 아니 직접 나오지는 않고 언급만 되고 있는 아내의 한풀이에 있다. 모든 장면은 아내의 한스러운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혹은 그녀에게 그녀의 죽음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곳의 일환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출과 배우들은 위트 넘치는 장난으로 객석으로부터 굉장한 리듬감을 이끌어 냈다. - 김지용

연출 윤우진 조연출 이상빈 작가 양효윤 무대감독 강원재 예술감독 오치운 음악감독 이영재
안무 윤현숙 조명 이찬우, 배치훈, 박신욱 무대 황경호, 임지은, 임슬기 기술감독 최용혁 기획 정현우
출연 이혁우, 박찬영, 진선미, 양성우, 박지현, 유하나, 김민지, 이동욱, 한수용, 김상현, 임희선, 이유경

Director Yoon Woo Jin Assistant Director Lee Sang Bin Writer Yang Hyo Yoon
Stage Manager Kang Won Jae Artistic Director Oh Chi Woon Musical Director Lee Young Jae
Choreography Yoon Hyun Suk Lighting Lee Chan Woo, Bae Chi Hoon, Park Sinuk
Stage Hwang Kyung Ho, Lim Ji Eun, Lim Seul Ki Technical Director Choi Yong Hyeock
Producer Jung Hyun Woo

Cast Lee Hyuk Woo, Park Chan Young, Jin Sun Mi, Yang Seong Woo, Park Ji Hyun, Yu Ha Na,
Kim Min Ji, Lee dong Uk, Han Su Yong, Kim Sang Hyun, Lim Hee Sun, Lee Yu Kyung

Ugly Man <Co-Production>

한국 / 운(雲) 프로젝트 그룹 Korea / Un(雲) Project Group

5.10(금) 18시, 11(토) 16시 May 10th(Fri) 18:00, May 11th(Sat) 16:00

관객과의 대화 : 5.10(금) 공연 후 Q&A Session : May 10th(Fri) After the performance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Yeno Hall of Kyungsoong University

60분 / 7세 이상 60MIN / Rated PG-6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당신에게 바칩니다.

더러운 거지들의 아름다운 일상 이야기 <Ugly Man>

<Ugly Man>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삶을 살고 있는 관객들의 일상을 우화적이고 코믹하게 풀어낸 언버벌 연극이다. 하찮은 것이라도 지켜보려 발버둥치는 거지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 속에서 웃다 보면, 어느새 관객들은 우리의 일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지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교감하며 역경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지만은 않은 일상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This is dedicated to you who strive to keep your livelihood.

<Ugly Man>, a story of beautiful lives of dirty beggars.

<Ugly Man> is a non-verbal performance which expresses daily routines of clowns living the ugliest lives in the world in an allegorical and comic way. While the audience laughs watching ridiculous beggars who struggle to keep worthless things, they will find their own routines. They are ugly rather than beautiful. However, this performance intends to find true meanings of our daily routines which are not very beautiful when the beggars open their minds, interact with each other, and overcome hardships together.

운 프로젝트 그룹(雲 Project Group)

2010년에 결성한 운 프로젝트 그룹(雲 Project Group)은 소통이라는 주제로 연극, 무용, 언버벌 공연에서부터 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식의 새로운 작업을 시도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2010년 <우리 엄마, 정숙이, 차여사>를 시작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엄마, 정숙이, 차여사>는 2011년 부산국제연극제에 초청되어 전회 매진이라는 흥행과 호주 아틀레이드 축제 위원장과 프랑스 아비뇽 축제 위원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연출 오치운 조연출 고민규 컨셉디자인 임유진 무대미술 황경호 음악감독 이영재 움직임연출 박연정 조명디자인 장기훈 음향오퍼레이터 김지희 소품 최광재 의상 김성훈 분장 백선우 출연 장우영, 고민규, 오치운, 양효윤

Director Oh Chi Woon Assistant Director Ko Min Kyu Concept Design Lim Yu Jin
Stage Art Hwang Kyung Ho Musical Director Lee Young Jae Movement Director Park Yeon Jung
Lighting Designer Jang Ki Hoon Lighting Operator Kim Jee Hee Props Choi Gwang Jae
Costume Kim Sung Hoon Make Up Baek Seon Woo Cast Jang Woo Young, Ko Min Kyu, Oh Chi Woon, Yang Hyo Yoon

BIPAF Co-Production

2012년 부산국제연극제와 벨기에 플라스극장과 한국 아시아나우와의 Co-Production으로 제작한 <병사이야기>의 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부산국제연극제와 부산지역 연출가 및 극단과 함께 Co-Production을 진행하여 작품을 제작한다. 자체 Co-Production을 통해 부산국제연극제 기간에 공연함과 동시에 BIPAF TOUR를 진행할 수 있는 작품을 제작 및 기획한다. 부산국제연극제는 2014년부터 Co-Production 작품을 점차 늘릴 계획이다.

공연장 안내 Venue Guide



1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
848-4 Daeyeon-dong, Nam-gu, Busan, Korea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대연역 3번, 5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15분 거리
By Subway Daeyeon Station (line 2) → Exit No.3 or No.5 → 15 minutes on foot

버 스 51, 68, 134, 138 탑승
By Bus Take Bus 51, 68, 134, 138

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예노소극장 Concert Hall, Yeno Hall of Kyungsoo University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314-79, Daeyeon-dong, Nam-gu, Busan, Korea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경성대 부경대역 4번, 6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5분 거리
By Subway Kyungsoo Univ., Pukyung Univ Station (line 2) → Exit No.4 or No.6 → 5 minutes on foot

버 스 10, 20, 22, 24, 27, 39, 40, 41, 42, 51, 83, 83-1, 108, 131, 155, 1001, 1003 탑승
By Bus Take Bus 10, 20, 22, 24, 27, 39, 40, 41, 42, 51, 83, 83-1, 108, 131, 155, 1001, 1003

3 공간소극장 Gonggan Theater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497번길 7
556-15,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Korea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남천역 3번 출구 도보 10분 거리
By Subway Namcheon Station (line 2) → Exit No.3 → 10 minutes on foot

버 스 583, 51, 20, 131, 1001, 1003 탑승
By Bus Take Bus 583, 51, 20, 131, 1001, 1003

4 액터스소극장 Actors Theater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7
12-19, Namcheon-dong, Suyeong-gu, Busan, Korea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남천역 1번 출구 도보 5분 거리
By Subway Namcheon Station (line 2) → Exit No.1 → 5 minutes on foot

버 스 41, 42, 51, 20, 1001 탑승
By Bus Take Bus 41, 42, 51, 20, 1001

5 영화의전당 Busan Cinema Center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1467, U-il-dong, Haeundae-gu, Busan, Korea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센텀시티 6번, 1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5분 거리
By Subway Centum City Station (line 2) → Exit No.6 → 5 minutes on foot

버 스 115, 181, 36, 139, 63, 40, 5, 5-1, 155, 141, 1002, 1001, 307 탑승
By Bus Take Bus 115, 181, 36, 139, 63, 40, 5, 5-1, 155, 141, 1002, 1001, 307

6 광안리 BIPAF ZONE Gwananri Beach BIPAF ZONE

광안리 해수욕장 입구 해변에 위치
Nearby entrance of Gwananri Beach

지 하 철 지하철 2호선 광안역 금련산역 하차 후 도보 5분 거리
By Subway Gwanan Station (line 2) → 5 minutes on foot

버 스 20, 38, 39, 40, 41, 42, 51, 83, 83-1, 108-1, 131, 139, 155, 1001, 1003 탑승
By Bus Take Bus 20, 38, 39, 40, 41, 42, 51, 83, 83-1, 108-1, 131, 139, 155, 1001, 1003

티켓 안내 Ticket Guide

구 분 Division	전 공연 All Performances
일 반 Adult 청소년 Youth	10,000원(won)
장애인 Disabled	50% 할인 (3급 이상, 동반 1인 포함) 50% discount (May be accompanied by one guest, also eligible for 50% discounted ticket: must provide proof of status)
국가유공자 Veterans	50% 할인(본인만) 50% discount
문화바우처카드소지자 Who has Culture Voucher Card	문화바우처카드 지참 후 현금 결제 시 본인 5,000원 할인(문화바우처 카드 결제 불가) 50% discount
BIPAF ZONE 타임 세일 Time Sale in BIPAF ZONE	5.4(토) ~ 11(토) 16시부터 선착순 20매 50% 할인! (1인 2매 한정, 지정 공연 한정) 5.4(Sat)~5.11(Sat) From 16:00pm 20 Tickets are available on a first come, first served basis. (2 Tickets per person and only the specified performance)

지정예매처 For Booking

전화예매 By Phone :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사무국 T. 051) 714-6920

인터넷예매 By Internet : 옥션 티켓 AUCTION 티켓 ticket.auction.co.kr

공연일정표

Performance Schedule

BIPAF OPEN	BIPAF CONCEPT	Go. Avignon OFF	아외공연 Outdoor Performance
------------	---------------	-----------------	-----------------------------

※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The schedule of events can be changed.

★는 관객과의 대화입니다.
★ is Q&A Session

장소 Venue	3일(목/Thu)	4일(토/Sat)	5일(일/Sun)	6일(월/Mon)	7일(화/Tue)	8일(수/Wed)	9일(목/Thu)	10일(금/Fri)	11일(토/Sat)	12일(일/Sun)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in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19:00	18:00 ★								
		파가니니(스페인) Paganini (Spain)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20:00 ★	20:00				
		문악 Unak (한국) 부산연극제 대상작 The Winner of Busan Theatre Festival								18:00 ★ 유령(오스트리아) Apparition (Austria)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14:00 17:00	14:00 ★		20:00 ★	20:00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 왕자(한국)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Korea)			NAIF (스페인) NAIF (Spain)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Concert Hall of Kyungseong Univ.							20:00 ★	20:00		
					잉그리진 도시 (대만) Disortion City (Taiwan)			Chapter6: 인생 (영국) Chapter6: Life (UK)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Yeno Hall of Kyungseong Univ.					18:00 ★				18:00 ★	16:00 *부산국제연극제 공동제작 Ugly man (Korea) Co-Production
					잉그리진 도시 (대만) Disortion City (Taiwan)					
영희의전당 하늘연극장 Haeulsy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18:00 ★	18:00				19:00 ★	19:00		
		시네마테크(프랑스) Cinematheque (France)						도겐겐의 슬픈 여가 (일본) DOGEN GENSA (Japan)		
액티스 소극장 Actors Theater			16:00	16:00				13:00	13:00	13:00
		쥐 The Mouse	성대행의 자리 The place of the other	성대행의 자리 The place of the other	16:00	16:00	16:00	16:00	16:00	16:00
Go. Avignon OFF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장대행의 자리 the other	쥐 The Mouse	쥐 The Mouse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공간 소극장 Gongsang Theater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나는 처음 Cheo Yong	어떤 사건 An Absurdity of Things	어떤 사건 An Absurdity of Things	15:30	15:30	15:30	15:30	15:30	15:30
Go. Avignon OFF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꽃 담 The Wall of Flower	나는 처음 Cheo Yong	나는 처음 Cheo Yong	18:30	18:30	18:30	18:30	18:30	18: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어떤 사건 An Absurdity of Things	꽃 담 The Wall of Flower	꽃 담 The Wall of Flower	21:30	21:30	21:30	21:30	21:30	21: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투송호 2SH	팬스위치 PANCSWITCH	팬스위치 PANCSWITCH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마네퀸 MANNEQUEEN	신화와의 김루트 SEEN&ROOT	신화와의 김루트 SEEN&ROOT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10주년 파티 10th BIPAF Anniversary Party	자이볼사자의 날 The Day of Volunteer	자이볼사자의 날 The Day of Volunteer	22:00	22:00	22:00	22:00	22:00	22: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23:00	23:00	23:00	23:00	23:00	23: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0분 연극제 일반부 예선 Public First Ground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BIPAF 아외 공연 및 부대 행사		17:30	17:30	17:30				17:30	17:30	17:30
		10분 연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 셔틀버스 시간표
BIPAF Shuttle Timetable

*셔틀버스는 관객들의 편의를 위해 무료로 운영됩니다.
*표시된 시간은 출발시간 기준입니다.
*경유구간에서는 해당극장의 인근(극장까지 도보로 5~10분 소요)에서 하차만 가능하며, 승차는 불가능합니다.
*It's FREE Shuttle for the convenience of BIPAF Audience.
*Mark is a measure of the departure time.
*At the Stopover, impossible to ride only can get off.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센텀 호텔	경유구간	경성대학교	부산 문화회관	공간 소극장	액터스 소극장	BIPAF ZONE	센텀 호텔	아르피나 (도착)
	Arpina Busan Youth Hostel	Haeundae Centum Hotel	Stopover	Kyungseong Univ.	Busan Cultural Center	Gonggan Theater	Actors Theater	BIPAF ZONE	Haeundae Centum Hotel	Arpina Busan Youth Hostel (Arrival)
5.2(목) 5.2 (Thu)	10:00	10:10	액터스소극장, 공간소극장 인근 (도보 5~10분 거리) *승차 불가능, 하차 가능 Near by Actors Theater, Gonggan Theatre (It is a 10minutes to walk from the stop) *Impossible to ride only can get off	10:45	11:00	11:15	11:20	11:30	11:45	12:00
	13:00	13:10		13:45	14:00	14:15	14:20	14:30	14:45	15:00
	15:00	15:10		15:45	16:00	16:15	16:20	16:30	16:45	17:00
	18:00	18:10		19:00	19:20	19:50	20:00	20:25	20:50	21:00
	21:00	21:10		21:45	22:00	22:15	22:20	22:30	22:45	23:00
5.3(금) ~ 5.11(토) 5.3 (Fri) ~ 5.11 (Sat)	10:00	10:10	액터스소극장, 공간소극장 인근 (도보 5~10분 거리) *승차 불가능, 하차 가능 Near by Actors Theater, Gonggan Theatre (It is a 10minutes to walk from the stop) *Impossible to ride only can get off	10:45	11:00	11:15	11:20	11:30	11:45	12:00
	11:00	11:10		11:45	12:00	12:15	12:20	12:30	12:45	13:00
	13:00	13:10		13:45	14:00	14:15	14:20	14:30	14:45	15:00
	14:00	14:10		14:45	15:00	15:15	15:20	15:30	15:45	16:00
	15:00	15:10		15:45	16:00	16:15	16:20	16:30	16:45	17:00
	16:00	16:10		16:45	17:00	17:30	17:35	18:00	18:25	18:40
	18:00	18:10		19:00	19:20	19:50	20:00	20:25	20:50	21:00
	20:00	20:10		20:45	21:00	21:15	21:20	21:30	21:45	22:00
21:00	21:10	21:45	22:00	22:15	22:20	22:30	22:45	23:00		
22:00	22:10	22:45	23:00	23:15	23:20	23:30	23:45	00:00		
5.12(일) 5.12 (Sun)	11:00	11:10	액터스소극장, 공간소극장 인근 (도보 5~10분 거리) *승차 불가능, 하차 가능 Near by Actors Theater, Gonggan Theatre (It is a 10minutes to walk from the stop) *Impossible to ride only can get off	11:45	12:00	12:15	12:20	12:30	12:45	13:00
	14:00	14:10		14:45	15:00	15:15	15:20	15:30	15:45	16:00
	16:00	16:10		16:45	17:00	17:30	17:35	18:00	18:25	18:40
	20:00	20:10		20:45	21:00	21:15	21:20	21:30	21:45	22:00
	22:00	22:10		22:45	23:00	23:15	23:20	23:30	23:45	0:00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Go, 아비뇽OFF 경연작
Go, Avignon OFF Competition

2014 프랑스 연극 페스티벌 '아비뇽OFF'에 참가할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열띤 경쟁을 벌이는 국내 17개의 경연작을 만날 수 있다.

There will be 17 performances competing against each other
to be selected for Festival d'Avignon OFF 2014.



나는 처용 Cheo Yong



한국 / 극단 까망
5.3(금) 15:30, 4(토) 18: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Kkamang theatre
 May 3rd(Fri) 15:30, May 4th(Sat) 18: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2013, 오늘날의 감성을 담은 처용설화의 새로운 탄생
년버벌, 무용, 디지털이 만나 우리네 주술과 신명을 감각하다.

우리의 설화는 왜 고전으로만 남아있는가? 〈나는 처용〉은 처용의 설화를 시간을 넘어선 이 시대의 화두로 던지고자 한다. 오늘날의 처용을 위해 세미 년버벌 작업 및 디지털이 어우러지는 탈장르를 시도한다. 무대 위 소리와 몸짓 그리고 무용적 요소가 대사와 노래, 선시로 표현되며 새로운 형태의 전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 new creation of the tale of Cheoyong with today's sensibility in 2013
With a combination of non-verbal arts, dance, and digital, we perceive our conjuration and enjoyment.

Why our tales remain as tales or classics only? 〈Cheo Yong〉 intends to throw the tale of Cheoyong as a topic of this era beyond time. The performance seeks to go beyond its genre with semi non-verbal and digital work for today's Cheoyong. Sounds, movements, and dance are expressed in lines, songs, and Zen poetry for a new form of tradition.

극단 까망

1982년 이용우 선생님에 의해 창단 되었다. 창단공연인 〈떡〉을 계기로 〈조용한 방〉, 〈멀티미디어〉, 〈웅정강〉 등 실험적인 공연을 통해 새로운 연극 양식을 시도 하였다. 리얼리즘 연극뿐만 아니라 년버벌 장르를 추구하는 극단 까망은 21세기 동시대 연극의 무대 언어와 형식의 다양화, 새로운 표현 양식 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세미 년버벌 맥베드〉, 〈보이체크 날다〉 등이 있다. 해외에서는 동부유럽 MOT페스티벌에 〈낙원의 새〉와 〈세미 년버벌 맥베드〉가 두 차례 초청되어 성공리에 공연 하였다.

작·안무(연출) 강만홍 기획·조연출 강은지, 이한아 출연 이란아, 김양성, 박민수, 김지애, 권일훈, 김병진, 이창훈, 서예현, 김용운

Writing and Choreography(Director) Kang Man Hong Production and Assistant Director Kang Eun ji, Lee Han a Cast Lee Ran a, Kim Yang Seong, Park Min su, Kim Ji ae, Kwon Il hun, Kim Byeong jin, Lee Chang hoon, Seo Ye hyun, Kim Yong woon

The Wall of Flower 꽃담



한국 / 예술다리 전설의 삼선교
5.3(금) 18:30, 4(토) 21: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Mystery Bridge
 May 3rd(Fri) 18:30, May 4th(Sat) 21: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역사 뒤 숨겨진 소박한 민초들의 이야기
소리 없이 스러져간, 신명과 해학의 한국적 정서를 풀어낸다.

〈꽃담〉은 역사 교과서 뒤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분명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소박한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궁의 담을 사이에 두고 들려오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배고픈 백성의 소리, 살고픈 민초의 소리, 우리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120여 년 전 어디에선가 있었을 공간에 상상의 눈으로 다가가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바란다.

A story of simple grass roots hidden in history
This describes Korean emotions of enjoyment and humor which were lost quietly.

〈The Wall of Flower〉 contains a story of simple grass roots who are hidden in history books but who are part of history. When you listen to their stories over a fence in a palace, you will listen to stories of hungry people, struggling grass roots, your grandmothers, and your grandfathers. This story expresses our emotions which were lost quietly.

예술다리 전설의 삼선교

예술다리 전설의 삼선교는 서울 성북구 삼선교 일대에 모여 자유롭게 예술을 교류하는 단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리를 놓는 일”이란 모토 아래, 예술다리 위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마음의 벽을 내리고 더 큰 “예술다리”를 만들기를 희망한다. 전설의 삼선교에서, 지금은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는 우리들의 모험이 언젠가 전설이 되기를 바란다.

연출 안치선 조연출 조세란 음향 김동현 조명 박유진 무대·의상 최순화 출연 나철, 조윤정, 김영성, 민동식, 고봉주

Director Ahn Chi Seun Assistant Director Cho Se Ran Sound Kim Dong Hyeon Lighting Park Yu Jin Stage and Dress Choi Soon Hwa Cast Na Cheul, Cho Yoon Jung, Kim Young Sung, Min Dong Sik, Ko Bong Ju

어떤 사건 An Absurdity of Things

The Mouse 쥐



한국 / 극단 장이
5.3(금) 21:30, 4(토) 15: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Professional Doer
 May 3rd(Fri) 21:30, May 4th(Sat) 15: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한국 / 극단 누리예
5.4(토) 16:00, 5(일) 19:00
 액터소극장
 45분 / 12세 이상

Korea / Nurie
 May 4th(Sat) 16:00, May 5th(Sun) 19:00
 Actors Theater
 45MIN / Rated PG-11



나를 만드는 것은 나인가? 너인가?
 여기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어스름한 달빛이 들어오는 방. 침묵 속에 강인철이 신고 전화를 한다. 연쇄 실종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던 최창식 형사는 신고에 의해 그에게 오게 되고, 강도가 들어 와서 어쩔 수 없는 살인을 했다는 강인철. 하지만 분명히 있어야 할 시체가 없다. 강인철의 상상인 것일까?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가?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

Who makes me? Is it me or you?
 Here <An Absurdity of Things> happens.

A dim moonlight comes into a room. In silence, Kang, In-Cheol calls the police to report that a man died in his place. Detective Choi, Chang-Shik who is investigating a series of disappearance comes to him due to his report. Kang, In-Cheol says that he had no choice but killing the man because he broke into his place. However, there is no dead body which should be there. Is this his imagination or a simple trick? The truth of the incident slowly comes into the light…….

극단 장이
 극단 장이는 201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향한 문을 두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귀 기울이시면, 조심스럽게 푹-푹-하는 소리가 들리지도 모릅니다.

연출 이성호 무대감독 윤현덕 음악감독 이승호 진행 김제형, 박병성 출연 김태훈, 이경훈, 김문영

Director Lee Sung-Ho Stage Director Yoon Hyun-Deok Musical Director Lee Seung-Ho
 Presenter Kim Je-Hyeong, Park Byeong-Seong Cast Kim Tae-Hun, Lee Kyoung-Hoon, Kim Moon-Young

인간 내면의 어두운 본성을 파헤친다!
 권력, 그리고 계급에 의해 드러나는 인간의 욕심과 잔인함.

권력, 그리고 계급 위에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싶어 하는 인간의 어두운 내면은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점이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거나 죽이고, 한겨울에 떨어진 모포 한 조각과 곰팡이 핀 빵을 제공하고 온종일 노동을 종용하는 우리는 짐승과 무엇이 다를까? 이런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면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나서야 하지 않을까? 돼지의 광기어린 탐욕과 지배욕구,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삶을 포기하고 굴림 당하는 쥐들, 이를 통해 인간성 상실과 생존 본능의 욕구를 보여준다.

Dark human nature is unveiled!
 Human greed and cruelty emerge due to power and classes.

This performance describes terrible and painful lives for the subjugated class. Rats symbolize the subjugated class and pigs the ruling class. The pigs have lunatic greed and the urge to control. The rats are dominated by the pigs while they give up their lives due to survival instincts. They show loss of humanity and desire for survival instincts.

극단 누리예
 극단 누리예는 1997년 전문화된 연극을 창작하고자 하는 뜻을 모아 창단한 연극 집단으로서 관객과의 교감을 최우선으로 지향한다. 누리예의 공연은 지금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양식을 통해 표현하여, 관객으로 하여금 새로운 관극 체험과 즐거움 그리고 함께 사는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한다. 부산을 모태로 한 누리예는 새로운 극적 체험을 대한민국은 물론 온 세계인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제작·기획 강봉금 작·연출 강성우 조연출 김아라 음악 황유나 조명 신성식 의상 최현경 무대소품 이지혜 조명오퍼레이터 김고은 진행 황정미 출연 이창환, 박빈, 김아라

Production Kang Bong-keum Writer and Director Kang Sung-U Assistant Director KIM ARA
 Music Hwang Yu-na Lighting Shin Seong-shik Costume Choi Hyeon-kyeong Props Lee Ji-hye
 Lighting Operator KIM Go-eun Staff Hwang Jung-mi Cast Lee Chang-hwan, Park Bin, KIM ARA

상대방의 자리 The place of the other



한국 / 극단 76
5.4(토) 19:00, 5(일) 16:00
액터스소극장
 45분 / 12세 이상

Korea / Theatre 76
 May 4th(Sat) 19:00, May 5th(Sun) 16:00
 Actors Theater
 45MIN / Rated PG-11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당신은 무엇입니까?
부조리한 인간 삶을 정면으로 돌파하다.

남자는 앉아있고 여자는 서 있다는 사실 이외에, 이들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무도 정해지지 않았다. 길에 있는지, 병원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들은 정신병원에 있는지도 모른다. 남자는 여자에게 앉으라고 권한다. 여자는 끝까지 거부한다. 부조리한 상황들 속에 놓인 인물들을 통해 연극보다 더 부조리한 현실 속을 살아가는 관객들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한 점을 짚을 수 있는 연극이 되고자 한다.

Where am I, who am I, and what are you?
For absurd human life, take the bull by the horns.

《The place of the other》 intends to give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ir lives to the audience who live in more absurd reality than a play and to give a turning point in their lives through characters in absurd situations.

극단 76

극단 76은 1976년에 창단하여, 기국서 연출의 《햄릿》시리즈와 《관객모독》으로 80년대를 뜨겁게 달군 극단으로, 2013년 현재까지 젊은 연극인들의 극단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80년대의 기국서 연출, 90년대에는 극단 골목길의 박근형 연출을, 2000년대에는 극단 죽죽의 김낙형 연출을 배출하여 연극계는 물론 사회의 한 단면을 대변하는 연극을 만들어 왔다. 극단 76은 자유로운 정신과 실험정신으로 연극적 미학을 무대에 보여주고자 한다.

연출 김국희 무대미술 박미란 음향오퍼 김경미 조명오퍼 노현주 조명 허성수, 전경우 드라마투르그 임재일 출연 김민기, 하지은

Production Kim Gook Hee Stage Art Park Mi ran Sound Operator Kim kyung mee
 Lighting Operator Nho Hyun ju Lighting Her Soung Soo, Jun Kyung Woo Dramaturg Lim Jae il
 Cast Kim Min Gi, Ha Jee Eun

While you are doing so 네가 그리는 동안에



한국 / 극단 디아코노스
5.6(월) 15:30, 7(화) 21: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Diaconos
 May 6th(Mon) 15:30, May 7th(Tue) 21: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학교 폭력, 과연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가?
폭력에 상처받은 모든 이들에게 메시지를 선사하는 《네가 그리는 동안에》

폭력은 인류가 주먹을 칠 수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의사소통법이다. 특히 또래를 강제로 모아 둔 학교라는 장소에서 주먹다짐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피어나고 자라야 할 청소년이 죽음을 선택하는 현재의 학교폭력은 가장 최악의 의사소통이다. 《네가 그리는 동안에》는 가해자일수도 피해자일수도 혹은 방관자일수도 있는 청소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자 한다.

School violence, who is the perpetrator and who is the victim?
《While you are doing so》 presents a message to all who are hurt by violence.

Violence is a means of communication which has been passed down to now since human beings knew how to make a fist. In particular, it is quite natural that fist fights happen in a school where peers are forced to stay together. However, the current school violence makes blooming and growing teenagers choose death and it is the worst means of communication. 《While you are doing so》 gives teenagers who could be a perpetrator, a victim, or a bystander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hemselves.

극단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는 1996년 창단된 유망창작극단이다. 관객이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서 무대를 세우고 사람을 만난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상업주의 대신 진실한 꿈과 행복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는 디아코노스의 무대는 따뜻한 웃음과 소박한 감동으로 채워져 있다. 대표작으로는 《인생버스》, 《붕어빵 아줌마의 첫사랑》, 《Are You Happy?》, 《Reply》, 《초록구슬》, 《후다닥동물학교》 등이 있다.

공동연출 이경미, 윤은대 작가 이경미 무대미술 남영우, 임솔기 음악감독 김창대 음향 윤은대 조명 탁소윤 출연 임경민, 성유미, 이성희, 김기순, 석지철, 김성훈, 김미소, 이안나, 이승한, 김태연

Director Lee Kyeong-mi, Yun Eun-dae Writer Lee Kyeong-mi Stage Art Nam Young Woo, Lim Seul Ki Musical Director Kim Chang Dae Sound Yun Eun-dae Lighting Tak So-yun
 Cast Lim Kyeong-min, Sung Yu-mi, Lee Sung-hee, Kim Gi-soon, Seok Ji-cheol, Kim Seong-hoon, Kim Mi-so, Lee An-na, Lee Seung-han, Kim Tae-yeon

짐은 임금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다 I'm the King, but the Emperor is you

Star 별



한국 / 예술창작집단 몽우
5.6(월) 18:30, 7(화) 15:30
 공간소극장
 40분 / 12세 이상

Korea / Art Dream Rain
 May 6th(Mon) 18:30, May 7th(Tue) 15:30
 Gonggan Theater
 40MIN / Rated PG-11

탈춤의 본질은 신명이다! 용기로 세상에 맞서는 왕,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는 거짓의 한 판 놀음! 형식을 버리고 새로운 해학에 도전하는 <짐은 임금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다>

<짐은 임금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다>는 우리 조상들이 탈을 쓰고 권력가들의 부정을 꾸짖던 해학의 신명을 현대로 가져와 재해석한 작품이다. 옛것의 본질만을 살리고 형식은 과감히 버려 그 옛날 신명의 정신을 살리고자 한다. 걸치레만 남은 전통의 이름은 버리고 탈춤이 가진 신명을 통해 현대인에게 우리 옛것을 진정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탈춤의 알맹이만을 가지고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삶을 건전하게 해갈 하는 것, 신나고 유쾌하며 올바른 것을 추구한다.

The essence of the mask dance is enjoyment! A play of a king who faces the world with his courage and those who brings him down from the throne!

<I'm the King, but the Emperor is you> gives up a form and challenges new humor.

The humor of our ancestors wearing masks and criticizing corruption of men in power has been reinterpreted in this play, <I'm The King, but the Emperor is you>. This play intends to revive the traditional humor and spirit by keeping the traditional essence and giving up the form. This play intends to give up the name of tradition which is a mere show and to make modern men feel our tradition in their hearts through the enjoyment of the mask dance. When anonymity is guaranteed, this play seeks to relieve stress in a healthy manner and to find enjoyable, pleasant, and righteous things with the essence of the mask dance.

예술창작집단 몽우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성에 대해 생각합니다. 특권층만 누리는 예술이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평등의 예술을 지향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술이 세상을 따뜻하게 보듬길 희망합니다. 하여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살고자 희망합니다. 사람 넘세나는 예술을 하고자 합니다.

연출 박정현 음향감독 황철웅 악사 김동현 출연 박정현, 황철웅, 김동현, 최성민, 김태웅, 박주현, 강다혜

Director Park Jung hyun Sound Director Hwang Chul woong Musician Kim Dong heon
 Cast Park Jung hyun, Hwang Chul woong, Kim Dong heon, Choi Sung min, Kim Tae woong, Park Ju hyun, Kang Da hye

한국 / 극단 소리
5.6(월) 21:30, 7(화) 18: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Sori
 May 6th(Mon) 21:30, May 7th(Tue) 18: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록 그룹 '샤이닝스타'의 사랑과 음악!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그들의 마지막 공연이 펼쳐진다. 콘서트에서 드라마로, 드라마에서 콘서트가 된다! 록 뮤지컬 콘서트 <별>

록 뮤지컬 콘서트 <별>은 기악의 연주를 극적 표현양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주자는 배우를 받쳐주는 백 밴드 수준에서 벗어나 극적인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한 배우가 직접 연주를 하고 뮤지션이 연기를 하는 콜라보레이션은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보여줄 것이다. 일렉트릭 사운드부터 어쿠스틱 사운드, 90년대 헤비메탈 풍의 록에서 발라드와 보사노바, 재즈와 최신 팝 장르를 넘나들며 극적 분위기를 표현한다.

Love and music of a rock band, 'Shining Star! Their last concert takes place to win love. From a concert to a drama and from a drama to a concert! Rock musical concert, <Star>

Rock musical concert, <Star> utilizes instrumental music performance in a dramatic manner. The band consists of the electric guitar, bass, vocals for the basic band and a diverse combination of the acoustic guitar and keyboard. They express dramatic atmosphere from electric sounds to acoustic sounds and from the 90's heavy metal rock to ballad, bossa nova, jazz, and latest pop genres.

소리컴퍼니

소리컴퍼니는 우리 대중음악으로 우리 정서에 맞는 음악극을 개발한다는 모토로 창작하는 컴퍼니이다. 콘서트 뮤지컬 <캐쉬>에 이어 2012년 록 콘서트 뮤지컬 <샤이닝스타>, 2013년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소리 팝 뮤지컬 <흥부전>을 제작하고 있다.

작·연출 정기환 프로덕션 매니저 엄영미 조명 강동엽 출연 김석만, 김연호, 김형주, 정기환

Writer and Director Cheong Ki hwan Production Manager Um Young mi Lighting Kang Dong yeop
 Cast Kim Seok man, Kim Yeon ho, Kim Hyeong ju, Cheong Ki hwan

짐은 임금이요, 그대들은 황제이다 I'm the King, but the Emperor is you

Star
5011

구름에 걸린 구두 Shoes hanging over clouds



한국 / 극단 기차
5.7(화) 13:00, 8(수) 16:00
액터스소극장
 50분 / 7세 이상

Korea / Performing arts creative group 'train'
 May 7th(Tue) 13:00, May 8th(Wed) 16:00
 Actors Theater
 50MIN / Rated PG-6

자그마한 구두방 속에서 벌어지는 커다란 세상 이야기

〈구름에 걸린 구두〉는 대사가 없는 언버벌 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연이다. 무대 위 펼쳐지는 다양한 몸짓과 박스, 천 등의 오브제는 상상력과 극적 재미를 전달할 것이다. 주인을 잃은 수많은 구두들이 전하는 삶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관객들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A story of a large world happening in a small shoe store.

〈Shoes hanging over clouds〉 is a non-verbal performance which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could enjoy and interact with. Diverse movements and objects such as boxes and cloth on the stage will deliver imagination and dramatic enjoyment. When many shoes which lost their masters deliver messages about life, the audience will reflect on their lives in a new manner.

극단 기차

'진정한 연극성을 가지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연극이 무엇일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2010년 첫 출발을 하였다. 배우 훈련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통해 공동 창작을 기반으로 하며, 연극교육, 재능기부 활동으로 소외된 우리 이웃과 소통하고 나눔의 시간을 소중히 만들어 나가고 있다. 연극을 통해 가슴 따뜻하고 행복해 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극단 기차가 가지는 창작의 의미이다.

작·연출 이나경 조명오퍼 양진아 음향오퍼 조은경 출연 이나경, 양진택, 장준환, 황현아

Writer and Director na kyeong-Lee Lighting Operator jinah-yang Sound Operator eunkyong-jo
 Cast na kyeong-Lee, jinteak-yang, Junhwan-Jang, hyeon-a-hwang

Tango of red roses 붉은 장미의 탱고



한국 / 극단 노가리
5.7(화) 16:00, 8(수) 19:00
액터스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NoGaRi
 May 7th(Tue) 16:00, May 8th(Wed) 19:00
 Actors Theater
 60MIN / Rated PG-11

진정한 사랑은 존재할 수 있을까? 관능적인 탱고와 전쟁 속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비가 오는 어느 날. 한 여인이 창밖을 보며 지나간 세월을 추억 하고 있다. 추억 속에서 사랑을 만난 그 때의 스페로우 여관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그가 탱고를 추고 있는데……. 〈붉은 장미의 탱고〉는 '맹목적인 사랑이 존재할까?'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Does true love exist? A love story in the middle of sensual tango and war.

To the question, 'does unconditional love exist?', many people answers that it does not exist. They say love cannot be unconditional and love requires something. This play intends to demonstrate that unconditional love exists. This play describes modern love in the background of tango and the third world war which is non-existing.

극단 노가리

노가리는 쉽다. 누구에게나 편한 안주가 되어주고 그들의 위안이 되어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토로 극단 노가리는 관객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편한 예술을 만들고자 한다. 또한 예술을 통해 그들의 위안이 되고자 한다.

연출·시나리오 박민국 스텝 박성환, 이동욱 사진 변지현 출연 박민국, 김혜연, 이유진, 정현우, 최현우, 우정민

Director and Scenario Park Min guk Staff Park Sung hwan, Lee Dong uk Photography Byun Ji hyun
 Cast Park Min guk, Kim Hye yeon, Lee Yu jin, Jung Hyun woo, Choi Hyun woo, Woo Jung min

요한 프란츠 Johann Franz (original : Woyzeck)



한국 / 친구네 옥상
5.7(화) 19:00, 8(수) 13:00
액터스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A friend's rooftop
 May 7th(Tue) 19:00, May 8th(Wed) 13:00
 Actors Theater
 60MIN / Rated PG-11

**대한민국의 보이척은 누구인가?
 어긋난 사회의 모습, 행복하기 위한 노동은 과연 행복을 향해 달려가는가?**

〈요한 프란츠〉에서는 보이척이 받았을 가족부양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무대에 형상화 하려고 한다. 우리는 보이척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가장 혹은 책임질 나이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싶었다. 그들은 성실하며 절대 요령을 피우지 않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다. 하지만 가난이란 형틀을 벗어 던지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무대 위에서 위태로운 보이척이 곧 나의 모습이며, 당신의 모습이고, 내 남편의 모습 또는 내 아버지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Who is Korea's Woyzeck?
 Absurd society... labor to become happy is running towards happiness?**

A man killing another, especially murdering his loving wife is a massive stress as a human. 〈Johan Franz〉 intends to express Woyzeck's stress about family support directly on a stage. Currently Korea is not different from Woyzeck. We wanted to describe breadwinners living in Korea or people who are old enough to be responsible for supporting their family through Woyzeck. They are faithful and hardworking. They don't try to take shortcuts. However, they are not good enough to take off a frame of poverty. Woyzeck being at risk on the stage could be me, you, my husband, or my father.

친구네 옥상

동네 친구들이 편하게 모여 노래도 하고, 얘기도 하고, 가끔 고기도 구워먹는 그런 곳. 편안하지만 생동감 넘치고 항상 재미난 일을 꾸미는 곳.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편하고 자유롭게 작업하기 딱 좋은 친구네 옥상입니다.

연출 한관희 조연출 정선명 안무 장영지 스텝 방중권, 김소영, 박주영 출연 이니나, 정선명, 김중훈, 이종민, 박유미, 김재욱, 권혁, 박가람

Director Han kwan hee Assistant Director Jeong sun myung Choreography Jang young ji
 Staff Bang jung kwon, Kim so young, Park ju young Cast Lee ni na, Jeong sun myung, Kim jong hoon, Lee jong min, Park yu mi, Kim jae wook, Kwon hyuk, Park ga ram

Ha-Lu 이야기 하루



한국 / 극단 나무
5.9(목) 15:30, 10(금) 18:30
공간소극장
 55분 / 7세 이상

Korea / Na-Mu
 May 9th(Thu) 15:30, May 10h(Fri) 18:30
 Gonggan Theater
 55MIN / Rated PG-6

**하루 할아버지의 가장 아름답고 즐거운 여행, 소중한 사람과 기억을 선물해드립니다.
 환상적인 종이 오브제와 아코디언 음악이 만난 인형극 〈이야기 하루〉**

어딘가 쓸쓸함이 감도는 하루 할아버지의 거실. 거리의 폐휴지를 모아 생활하는 할아버지는 지쳐 들어온다. 낡은 손수레의 짐을 풀고, 잠시 눈을 붙이는 할아버지. 그리고 하루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기억 여행을 떠나는데……. 환상적인 종이 인형들과 함께 펼쳐지는 시간들 속에서, 할아버지는 인생의 아름답고 즐거운 마지막 여행을 즐긴다. 종이의 구김 사이로 펼쳐지는 움직임, 그리고 아련한 아코디언 선율과 함께 할아버지의 아름다운 추억의 문을 관객들과 함께 열고자 한다.

**Grandpa Haru's the most beautiful and enjoyable trip presents you memories with precious people.
 A puppet show with a combination of fantastic paper objets and accordion music 〈Ha-Lu〉**

On a small and simple puppet show table, we intended to make a warm play showing diverse lives. As our life is not flat, Grandpa Haru's life is no different from crumpled and torn paper. Even crumpled paper has something else but a rough life. With movements among paper wrinkles and accordion melody, we would like to open the gate of beautiful memories of Grandpa Haru together with the audience.

극단 나무

어린이 놀이터 극단 나무는 2006년에 창단되어, 환경이란 대 주제와 “세계의 중심에 어린이가 있다”라는 모티브로 인형극, 가면극, 연극놀이, 마임, 거리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공연한다.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연극을 만들고자 한다.

연출 기태인 조연출 이준석 조명디자인 박석광 음향디자인 김성일 악사 임효신 출연 안순동, 문준혁, 광효중, 임보람

Director Ki Tae in Assistant Director Lee Jun seok Lighting Design Park Seok gwang
 Sound Design Kim Seong il Musician Lim Hyo sin Cast Ahn Sun dong, Moon Jun hyuk, Gwak Hyo jung, Lim Bo ram

Johann Franz (original : Woyzeck)

이야기 하루 Ha-Lu

Yom



한국 / 트러스트 무용단
5.9(목) 18:30, 10(금) 21: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Trust Dance theatre
 May 9th(Thu) 18:30, May 10h(Fri) 21: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오브제와 거리춤의 만남! 당신으로부터 채워질,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공연 <Yom>

<Yom>은 거리춤의 형식을 빌리고 '마법과 인형극단'의 옥중근이 제작한 오브제들을 접목시킨 작품이다. 거리춤과 오브제라는 새로운 시도가 만나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공연에 참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관객과 무용수의 '즉흥'이 이루어진다. 관객들과의 호흡 그리고 즉흥적인 상황을 통해 미완성의 공연을 함께 채워가는,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는 공연을 만들고자 한다.

A meeting of objects and street dance! <Yom>, an incomplete performance to be completed by you.

<Yom> is a performance of a borrowed street dance form and objects created by Ok, Jong-Keun from 'Magic and Puppet'. With a new trial of street dance and objects, the audience may participate in the performance naturally. During this process, an impromptu action of the audience and dancers take place. By working with the audience and through impromptu situations, we intend to complete this incomplete performance through participation of people of all ages and genders.

트러스트 무용단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 창작 춤의 모호성을 비판하며 우리들의 삶이 담긴 춤, 역사와 영혼에 깨어있는 춤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자 노력한다. 단순히 보이는 춤, 동작의 나열이 아닌, 춤 언어가 녹아 있는 춤을 만들고자 한다. 우리의 옛 연희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연출을 통해 관객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자 한다. 유럽 초청공연, 국외 단체와의 공동 작업을 통하여 국제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안무 김형희 연출 김윤규 무대 서진욱 음악 김지정 출연 박재영, 송명규, 구선진, 김영찬, 김동희, 김동욱

Choreography Kim Hyeonghee Director Kim Yungyu Stage Seo Jin wook Music Kim Ji jeong
 Cast Park Jaeyoung, Song Myung kyu, Gu Sun jin, Kim Young chan, Kim Dong hee, Kim Dong uk

Bahnhof Season2 반호프 - 시즌2



한국 / 창작집단 거기 가면
5.9(목) 21:30, 10(금) 15:30
 공간소극장
 60분 / 12세 이상

Korea / Creative Group 'GEOGIGAMYEON'
 May 9th(Thu) 21:30, May 10h(Fri) 15:30
 Gonggan Theater
 60MIN / Rated PG-11

마스크 너비벌과 한국적 감성의 만남, 새로운 너비벌의 탄생!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남을 기억하는 이른 아침의 기차역 그곳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어느 기차역. 이곳이 일상의 공간이 되어버린 개구쟁이 할아버지 동수에게 청소부 아주머니 소라는 좋은 친구이다. 역내에서 작은 매점을 운영하는 청년 석호가 매점을 열고, 노처녀 검표원 미숙이 출근하여 석호와 티격태격하면서 오늘도 바쁜 하루가 시작된다. 우리 주변의 많은 군상들이 새로운 출발과 헤어짐, 만남을 위해 기차역으로 오는데……. <반호프- 시즌2>는 마스크를 주 오브제로 이용하여 현대적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A meeting of mask non-verbal and Korean sensibility, creation of new non-verbal performance! A story of people at a train station where people meet, part ways, and hope to meet again early in the morning.

While the existing non-verbal performance was primarily for music and movements, <Bahnhof Season 2> focused on tension among characters by utilizing masks as main objects. As this performance contains both universal and modern sensibility, the audience may feel Korean culture vividly and have empathy for the story through this non-verbal play.

창작집단 거기 가면

2008년 결성, 마스크를 공연의 주 오브제로 사용하는 단체로, 작품에서 인간의 보편성을 지향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관람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발굴해내고 있다. 서울연극올림픽 공식참가작 너비벌 마스크극 <반호프(Bahnhof)>는 국내 공연뿐만 아니라 해외 공연의 가능성까지 넓게 열어 보였다. 마스크 연극 <소리별 이야기>는 독일 Folkwang Physical Theatre Festival에 공식 초청되어 현지에서 뜨거운 호평을 이끌어냈다. 새로운 너비벌 극을 제시하며 국내외 진출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연출 백남영 마스크제작 이수은 기술 감독 김광섭 음악 황승경 조명 고혁준 총괄기획 마창훈
 출연 구기환, 송영훈, 홍상표

Director Baek Namyeong Mask Design Lee Sueun Technical Director Kim Gwangseop
 Music Hwang Seung Kyung Lighting Go Hyeokjun Executive Producer Ma Changhun
 Cast Koo Gihwan, Song Younghun, Hong Sangpyo

꿈을 파는 가게 신문 공주 The dreaming is odyssey



한국 / 극단 해오름
 5.10(금) ~ 11(토) 13:00
 액터스소극장
 55분 / 4세 이상

Korea / The Rising Sun Dramatic Company
 May 10th(Fri) ~ May 11h(Sat) 13:00
 Actors Theater
 55MIN / Rated PG-3

텅 빈 무대, 감성과 상상력을 채워보세요!
오브제와 두드림, 몸짓을 이용한 가족극 <꿈을 파는 가게 신문 공주>

텅 빈 무대. 이곳은 새로 오픈 하는 가게이다. 종업원들이 나와 청소를 시작하면서 상자가 하나하나 늘어 가고, 상자 위 신문지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과연 이 가게는 무엇일까? 그리고 꿈을 파는 가게는 어떻게 만들어 질까? 텅 빈 무대 위, 12개의 상자와 여러 개의 천을 이용한 다양한 세트 변화와 무대구성은 보는 이들에게 상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무대는 곧 꿈을 파는 가게가 되어 관객들에게 꿈과 동심을 심어주고자 한다.

Fill an empty stage with sensibility and imagination!
<The dreaming is odyssey>, a family play with objects, percussion, and movements.

Objets such as newspaper and waste become characters. Diverse stage composition of 12 boxes and cloth on an empty stage will give the audience creativity. An empty space is filled as a story is made. At the end of the performance, the stage is completely filled. The stage is a shop selling dreams and it gives dreams and innocence of childhood to the audience.

극단 해오름

2000년 젊은 인재들의 활기찬 패기와 열정들이 모여 창단된 극단 해오름은 <新보물섬>을 시작으로 다년간에 걸쳐 기획공연, 초청공연, 축제공연, 행사공연, 방문공연 등 수많은 공연의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발전을 해왔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들면 고요한 어둠을 뚫고 둥근 해가 솟아오르며 세상을 깨우는 것처럼, 해오름도 그러한 희망이 되고자 한다.

대표 김진수 연출 강선아 공연팀장 김경현 조명 김진성 음향 진달래
 출연 강선아, 김경현, 권오심, 이미란, 차선문

President Jin Su Kim Director Sun-a Kang Performance Manager Kyung Hyun Kim
 Lighting Jin Seong Kim Sound Dal Rae Jin Cast Sun-a Kang, Kyung Hyun Kim, Oh Sim Kwon,
 Mi Ran Lee, Seon Moon Cha

Stay 머무른다



한국 /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5.10(금) 16:00, 11(토) 19:00
 액터스소극장
 40분 / 12세 이상

Korea / Dong Nyok
 May 10th(Fri) 16:00, May 11h(Sat) 19:00
 Actors Theater
 40MIN / Rated PG-11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꿈꾸고 싶다.
현대인의 외로움에 대해 얘기하는 <머무른다>

바쁜 걸음마다 근심을 실어내는 사람들. 차가운 시선 뒤로 쓸쓸한 흔적이 남는다. 제각기 단 하나의 특별한 누군가가 되고 싶었던 꿈도 지나가는 바람에 실려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하다. 스스로 모자람을 알기에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이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늘 차갑게만 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 꿈꾸고 싶다.

A person wants to meet another and dream.
<Stay> which talks about loneliness of modern men.

People carry worries with hurried steps. Lonely traces remain behind cold eyes. Dreams of becoming someone special seem to disappear in an instant with a breeze.
 As one is not perfect, one desires love to fill another one. However, reality throws cold eyes to confession. Despite all this, a person wants to meet another and dream.

극단 동녘

1995년 10월, '폐아프르 경성'이라는 이름으로 창단되어, 98년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전공/비전공을 불문하여 문호를 개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러 명의 연출이 각각의 성향에 맞게 작품을 창작 또는 선정하여 제작하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면서, 실험극, 환경연극, 뮤지컬, 한국 전통 연희, 집단 창작 등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작업 방식으로, 끊임없이 작품이 생산되는 명실상부한 연극제작소의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또한 자체 역량으로 국제적인 공연과 교류에 나서고 있다. 왕성한 창작력에 원숙함과 완성도를 더하며 한국연극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극단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다.

연출 윤우진 기획·진행감독 정현우 무대·기술감독 강원재 안무 박연정 음악 이영재 무대 임지은 조명 최용혁
 출연 이동욱, 성현일, 임희선

Director Yoon woo jin Executive Producer Jung hyun woo Stage and Technical Director Kang won jae
 Choreography Park yeon jung Music Lee young jae Stage Lim ji eun Lighting Choi yong hyeok
 Cast Lee dong uk, Sung hyun il, Lim hee sun

경련 Convulsion



한국 / 극단 DR
 5.10(금) 19:00, 11(토) 16:00
 액터스소극장
 45분 / 12세 이상

Korea / Theatre DR
 May 10th(Fri) 19:00, May 11th(Sat) 16:00
 Actors Theater
 45MIN / Rated PG-11

부조리극을 통해 우리 삶의 정답을 찾는다.

정신과 상담의인 일꾼에게 불현듯 한기가 엄습한다. 일꾼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한기에 경련을 일으키지만 일꾼의 그런 상태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오는 환자들마다 저마다 사회적 스트레스로 인한 한기를 느끼고 그들은 상담을 통해 일꾼을 힘들게 한다. 그 사이 마지막 환자를 통해 일꾼은 한기의 원인을 발견 하는데..... 연극 <경련>은 부조리극으로서 현대 사회의 지질 대로 지친 자들의 두려움을 한기(寒氣)로서 이야기 한다.

We find answers in our lives through an absurd play.

The play, <Convulsion> is an absurd play and it talks about fears of exhausted people in modern society in a cold manner. With the advent of realism, many directors and writers including Chekov talked about problems in our lives and presented solutions. However, we are facing other problems. No, they are not problems. We should stop labor in vain to find answers in our lives since they are not problems. We should accept them now.

극단 DR

용은 사람들 마음속에 항상 제왕으로 상징되는 상상의 동물이다. 구슬 없는 용에게 극단 DR은 구슬을 부여해 더 큰 뜻을 품고 하늘로 승천하게끔 만들고자 한다. 때로는 지쳐 상처받은 마음을 연극으로써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연출 이혁재 조명 김범준 음향 금재영 영상 김수현 프로듀서 조신형 무대감독 가심현 작가 사닥오
 출연 김동현, 이혁재, 서혜림, 최성권, 황세미

Director Lee hyuck-jae Lighting Kim beom-jun Sound Keum jae-yeong Video Kim su-hyeon
 Producer Kim beom-jun, Jo sin-hyeong Stage Director Ga sim-hyeon Writer Sa dak-oh
 Cast Kim dong-heon, Lee hyuck-jae, Seo hye-rim, Choi sung-kwon, Hwang se-mi

공연프로그램 Performance

야외 공연

Outdoor Performance



투승호 한국 Korea
2SH (Two seung ho)



5.4(토)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4th(Sat)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투승호는 추승호와 손승호가 만나 결성된 매직 퍼포먼스팀이다. 미술에 춤, 연기, 의상 그리고 재미난 스토리까지 들어간 가장 현대적인 스타일의 쇼를 선보인다. 맨스매직 퍼포먼스라는 새로운 장르의 미술을 선보이며 투승호의 넘치는 에너지와 환상적인 쇼맨십이 펼쳐진다. 2009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3등 수상,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춤추는 마술사'로 출연, 2011 엠넷 아시아뮤직어워드(MAMA) 엔딩공연.
Two Seung-Hoes is a magic performance team organized by Choo, Seung-Ho and Son, Seung-Ho.

매직 퍼포먼스 추승호, 손승호 음향 박홍석 무대 김석균

마네퀸 한국 Korea
MANNEQUEEN



5.4(토) 20:40 광안리 BIPAF ZONE
May 4th(Sat) 20:4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2010년 처음 결성된 마네퀸(MANNEQUEEN)은 강렬한 에너지와 감성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지는 음악을 추구하는 록밴드다.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여성 3명이 모인 여성밴드로 강한 비주얼과 화려한 액션으로 누구나 기억할만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현재는 각종 공연과 함께 1집 앨범 발매를 위한 녹음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2012 LOTTE 뮤직콘테스트 금상 수상.
Mannequeen was organized in 2010. It is a rock band who pursues music of powerful energy and emotional melody

보컬, 기타 REN 베이스 MIHO 드럼 BoheMina

Big Boned Rhythm 미국 USA
Big Boned Rhythm



5.4(토) 21:20 광안리 BIPAF ZONE
May 4th(Sat) 21:2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Big Boned Rhythm은 3인조 밴드로,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클래식 록, 블루스, 소울, 펑크 음악에 영향을 받았다. Big Boned Rhythm (aka BBR) is a power trio based out of Seoul, and influenced by classic rock, blues, soul, and funk.

기타, 보컬 Craig Furlonger 베이스, 보컬 Jarvis Martin
드럼, 퍼커션 Billy Hurricane

패닉스위치 한국 Korea
PANICSWITCH



5.5(일)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5th(Sun)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패닉스위치는 '유쾌, 상쾌, 통쾌'를 표방하며 2008년에 결성된 3인조 록큰 밴드다. 앨범 자켓을 포함한 밴드의 모든 아트웍 및 영상을 제작하며 인디펜던트의 끝을 향해 정진하고 있다. 관객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면 라이브 클럽, 카페, 거리, 페스티벌 등 어디든지 달려가 행복 에너지를 나눈다. 2010년 2월 유쾌한 록큰을 넘버 5곡으로 채워진 EP [번기가 된 남자]를 발매하고, 정규앨범을 준비하며 다양한 장소에서 행복 에너지를 나누고 있다. 2013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참가, 2013 상상마당 레이블 마켓 전시 및 공연, 2012 전주소리축제 소리프린지 참가
Panic Switch is a rock'n roll trio (2 Koreans and 1 Canadian) organized in 2008 with a motto of 'pleasant, refreshing, and delightful'.

기타, 보컬 홍종훈 베이스, 보컬 Paul Haskill 드럼, 퍼커션 장우봉

신현희와 김루트 한국 Korea
SEEN&ROOT



5.5(일)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5th(Sun)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보컬과 기타를 담당하는 신현희와 베이스와 코러스인 김루트로 구성된 기동천 오리엔탈 명량 어쿠스틱 듀오. 스물한살의 보컬 신현희의 일상과 생활, 사물에서 영감을 받은 자작곡들은 신선한 매력에 톡보인다.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사투리 나레이션 등은 그들의 개성을 보여줄 것이다. 슈퍼스타K 4, 보이스코리아2에 진출하기도 했던 신현희의 특이한 음색은 듣는 이들을 편안하면서도 오묘한 매력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2013년 통영국제음악제 프린지 참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참가, 2012년 지구의 날 Busking 행사 자작곡 1위, 현재 흥대 다수의 카페와 클럽에서 기획공연 및 정기 공연 중.

Phat oriental cheerful acoustic duo consists of Shin, Hyun-Hee on vocals and the guitar and Kim, Root in charge of the bass and chorus.

보컬, 통기타 신현희 코러스, 베이스 김루트

마임 매직 조영웅 한국 Korea
Panorama



5.6(월)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6th(Mon)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코믹마임매직을 선보이는 조영웅은 부산 경남 유일의 마임극단 '파노라마' 부대표로, 경성대 연극영화학과 졸업, 부산에서 입지를 굳힌 마임배우로 활동하고 있다. 마임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공연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자 한다. 마임을 기본으로 다양한 코믹요소와 미술을 접목 시켜 대중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Cho, Young-woong who shows comic mime magic seeks to present laughter to modern people through diverse performances based on mime.

마임 조영웅



CONTAINER NEW PARADIGM

행사 컨테이너 / 임시학교교실 / 철구조물 / 이동식주택 / 이동식화장실



주요실적
· 부산국제영화제 · 전주국제영화제 · 학교임시교사 · 전원 주택 등



일렉퀸 한국 Korea
Elec Queen



5.6(월)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6th(Mon)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일렉퀸은 전자 바이올린 2인과 전자 첼로 1인 그리고 보컬로 구성된 4인조 전자 현악 공연팀 이다. 2007년 3인조 프로젝트 팀으로 시작하였으며 2011년 새로운 멤버로 보컬이 합류해 4인조로 그룹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였으며 '노래하는 전자현악'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있다. 대중적이면서도 품격 높은 사운드를 구사하는 것은 물론 폭발적인 보컬까지 더해져 보는 이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만들 것이다.
Elecqueen is an electronic string quartet: 2 for the electronic violin, 1 for the electronic cello, and 1 for vocals.

전자 첼로 장은하 전자 바이올린 황보원, 정지윤 보컬 박혜영

ASCARA 응원단 한국 Korea
ASCARA



5.8(수)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8th(Wed)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ASCARA 응원단은 경상대학교가 자랑하는 전국 최고의 응원단이다. 82년 11월에 창단하여 30여년 역사를 자랑한다. 월드컵, 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 참여와 전국 대학 응원단 연합 활동도 하고 있다. 각 시·도에서 주최하는 체육 대회 등에도 매년 초청을 받는 실력과 인기를 갖춘 팀이다.
Ascara cheerleading squad is the best cheerleading squad that KyungSung University boasts in the nation.

단장 백민정 단원 김재윤, 방준영, 정석우, 최상기, 김범준

전포사거리 청년회 한국 Korea
Jeonpo Crossroads



5.7(화)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7th(Tue)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부산 예술의 몽마르뜨 전포 고개의 마지막 사거리에서 젊은 피들이 뭉쳐 혁명을 꿈꾼다. 말로는 표현 할 수 없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춤, 노래 그리고 우리들의 열정으로 외치고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마지막 보금자리, 모여라! 전포 사거리 청년회로! 젊은이들의 소소한 일상을 뮤지컬 넘버를 통해 재발견 할 것이다.

Jeonpo Sageori Young Adult Club presents a musical gala. The audience will find daily routines of the young through musical numbers.

출연 채민수, 정호준, 이영광, 김민정, 김경원

RK 밴드 한국 Korea
BAND RK



5.8(수)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8th(Wed)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결성 1년의 부산 밴드 슈퍼스타K 4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았다. 어쿠스틱 편성으로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4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They are planning to present comfortable music with acoustic sounds. They are about to release an album in April.

보컬 여령교 건반 박재민 드럼 김민서 기타 정용석

부산아들 한국 Korea
Busan Sons



5.7(화)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7th(Tue)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부산에서 살고 있어 부산아들이다. 멤버가 각자 다른 밴드에서 활동하는 중에 프로젝트 형태로 시작하게 되었다. 옛날 감성의 대학가요에서나 느낄 만한 풋풋함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지난날을 건조하게 바라보는 애뜻함을 담은 음악을 추구한다.

They pursue music of freshness which may be felt in university song contests and of nostalgia which may be felt by looking back on old days.

기타, 보컬 김신영, 전우현

단신 한국 Korea
Dansin



5.9(목)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9th(Thu)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멤버 전원이 전부 대한민국 평균 키에 도달하지 못해 '단신'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통기타, 일렉기타, 보컬, 젬베의 구성으로 하모니카나 멜로디언 등 다양한 악기를 사용한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음악을 추구한다. This group consists of the acoustic guitar, electronic guitar, vocals, and djembe. They use diverse musical instruments such as the harmonica and melodian. They pursue universal music that anyone could enjoy.

젬베, 작곡, 보컬, 코러스 김호명 보컬, 하모니카 윤예술 보컬, 멜로디언 백혜림 일렉 기타 손은규 통기타, 작곡 조은아

렌탈전문기업 **e-RENCOM**

전문적 노하우! 국내 최대의 장비와 인력보유! 정품렌탈 소프트웨어!

All-In-One

단기렌탈 시장점유율 1위!

www.bexcobiz.co.kr
Tel.051-722-6131
Fax.051-722-2223

홈페이지 · 쇼핑몰 · 모바일웹 개발 전문 웹에이전시



포인트웹 051·896·2425~6

부산국제연극제 온라인 기술지원 업체

www.pointweb.co.kr

모조 한국 Korea
MOJO



5.9(목)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9th(Thu)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1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동아대 어쿠스틱 밴드다. 어쿠스틱 편성으로, 어쿠스틱 기타를 포함해 신디사이저, 퍼커션, 베이스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다루며 신선함과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의 음악을 들려줄 것이다.
This is an acoustic band from Dong-A University with a tradition of more than 10 years.

기타, 보컬 구태균 신디, 보컬 배지한 기타 박종욱 퍼커션 박종웅 보컬 전소라, 민정미

B.C.P 한국 Korea
Black City



5.10(금) 20:00 광안리 BIPAF ZONE
May 10th(Fri) 20: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블랙시티는 흑인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를 선보이는 개성 강한 4명의 보컬로 구성된 팀이다. 멤버 4명이 각각 힙합 보컬, 알앤비 보컬, 발라드 보컬, 소울 보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장르의 보컬이 새로운 조합으로 어우러지는 재미를 추구하는 거리 공연 팀이다. 신나는 힙합부터 호소력 있는 발라드까지, 기성곡과 자작곡을 넘나드는 다양한 보컬을 파티 분위기로 선보일 예정이다.
Black city is a team with four individual members on vocals and the team shows diverse genres based on African-American music.

노래, 랩 강민우, 이용주 노래 윤성현, 이수호

해산물 마술사 김영진 한국 Korea
Magician Kim Young-Jin



5.10(금)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10th(Fri)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해산물을 이용한 마술공연을 선보이는 마술사 김영진은 다른 마술과 차별화를 둔 독특한 소재를 사용, 신선한 재미를 선보이는 공연을 선보인다. 관객이 마술을 직접 배우는 등 같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2012 여수 엑스포 초청 공연, 2011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우승.
Magician, Kim, Young-Jin presents a magic show by using seafood. He uses unique materials which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magic shows and gives unique enjoyment to the audience.

마술사 김영진 보조 김건웅 음악 이은지

영진쇄출판



design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3동 115-20
TEL : (051) 501-7613, 505-4926
대행번호 : 502-5146 FAX : 505-3648
E-mail : yjprinte@hanmail.net

HR시간 한국 Korea
HR Time



5.11(토) 21:00 광안리 BIPAF ZONE
May 11th(Sat) 21:0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3인조 혼성 모던락 밴드 'HR시간'은 2012년 3월 첫 번째 디지털 싱글앨범을 발매 이후 홍대 클럽에서 정기적인 공연으로 활동 중이다. 건반의 신디사이징, 베이스의 다채로운 이펙팅 사운드, 담백하며 절제된 드러밍이 함께 융합되어 그 이상의 사운드로 사람들의 생소함을 불식시킨다. 서정적이고 대중적인 가사와 멜로디로 하여금 듣는 이들의 귀와 감성을 자극한다. A mixed trio modern rock band, 'HR Time' has presented regular performances at clubs in the Hongdae area since they released their first digital single album in March 2012.

보컬, 키보드 이래비시 베이스 최한샘 드럼 조홍철

드래곤 헤드 마운틴 파크 한국 Korea
DHMP



5.11(토) 21:45 광안리 BIPAF ZONE
May 11th(Sat) 21:45 Gwangnanri beach BIPAF ZONE

'용두산 공원 밴드'로 불리우는 드래곤 헤드 마운틴 파크(이하 DHMP)는 2007년 결성 하여 재미있는 음악을 추구하며 활동해온 부산 인디씬을 대표하는 유쾌한 밴드다. 총 2장의 앨범을 발매하였고, 현재 정규 2집 준비를 하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Dragon Head Mountain Park called 'Youngdusan Mountain Park Band' was organized in 2007. This pleasant band pursues fun music and represents Busan indie music.

기타, 보컬 정동화 기타 신재이 베이스 김태우 드럼 권이도 건반 김민경

노모 한국 Korea
NOMO



5.11(토) 22:30 광안리 BIPAF ZONE
May 11th(Sat) 22:30 Gwangnanri beach BIPAF ZONE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디 계의 젊은 락과 랩, 메탈을 접목시킨 음악을 선보인다. 모든 걸 다 보여주겠다는 패기 넘치는 팀이다. 2012년 제3회 KRA 락페스티벌 1등 수상.
Young blood in indie music working in Busan! They present music in a combination of rock, rap, and metal.

보컬 김경한 기타 장지용 드럼 김한수 건반 조은영 베이스 최민욱

령교밴드 한국 Korea
BAND Ryeonggyo



5.11(토) 23:15 광안리 BIPAF ZONE
May 11th(Sat) 23:15 Gwangnanri beach BIPAF ZONE

결성 1년의 부산 밴드. 보컬인 령교의 이름을 따서 령교밴드다. 튼튼한 락 밴드 사운드에 일렉트로닉을 접목한 일렉트로닉락을 주로 선보인다. 슈퍼스타K 4에 출연, 대표곡으로는 Price of you, Loving you 등이 있다. 4월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
This is a year-old band from Busan. It is BAND Ryeonggyo named after Ryeonggyo who is on vocals. They present mostly electronic rock which is a combination of solid rock band sounds and electronic.

보컬 령교 건반 박재민 드럼 김민서 기타 정용석

BIPAF ZONE

"모두에게 열린 또 다른 축제의 장, BIPAF ZONE!"

광안리 백사장에 위치한 BIPAF ZONE은 시민들에게는 무료 공연 관람을, 예술인들에게는 시민들과의 만남을 제공하는 기회의 장이다. "축제 속의 축제, 모두에게 열린 또 다른 축제의 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공모를 통해 선발된 19개의 야외 공연, 10분 연극제와 더불어 각종 이벤트가 펼쳐진다.

봄날의 광안리 바다를 무대삼아 음악, 퍼포먼스, 무용 등 다양한 야외 공연이 펼쳐지고, 프로 못지않은 실력을 뽐내는 시민들의 10분 연극제가 행사 기간 동안 열릴 예정이다. 또한 티켓 타임 세일 등 관객 돌발 이벤트의 행운도 누릴 수 있다. 공연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쉼터가 되는 BIPAF ZONE은 모든 분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

BIPAF ZONE located in Gwananri beach is a spot for visitors to watch complimentary performances and for artists to meet an audience. With a slogan, "a festival among a festival, and a spot for another festival for all", visitors can enjoy 14 outdoor performances selected through a contest, '10 Minute Open Plays' and other events.



참여 프로그램

Joinable Program

'10 Minute Open Plays'

10분 연극제

BIPAF Workshop

BIPAF 워크숍

Q&A Session

관객과의 대화

BIPAF Lecture Digtalk

강연회-디지털

Busan Theatre Camp for Youth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

Busan Theatre Camp for Children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

10분 연극제 '10 Minute Open Plays'

“생각하라! 펼쳐라! 그리고 도전하라!”

네 인생에 스포트라이트를 켜라!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10분간의 꿈과 열정의 무대! 소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숨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 보일 수 있는 자리로 '일반부'와 '전공대학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공연은 누구나 관람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시민 경연 프로그램.

■ 일정

예선 일반부 : 5.4(토)~5(일) 18시 광안리 BIPAF ZONE *우천시 연기

전공 대학부 : 5.9(목) 18시, 10(금) 17:30 광안리 BIPAF ZONE *우천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본선 일반부 & 전공대학부 : 5.11(토) 17시 광안리 BIPAF ZONE *우천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일반 관객 관람 가능



'10 Minute Open Plays'

Anyone who loves theatre and performing arts can participate in the '10 Minute Open Plays'. With two categories: "General Public" and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erforming Arts" participants have a very unique opportunity to create and perform. The final round is open to be viewed by the public.

Outline of '10 Minute Open Plays'

First Round General Public : May 4th(Sat), 5th(Sun) 18:00 Gwanganri beach BIPAF ZON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Performing Arts : May 9th(Thu) 18:00, 10th(Fri) 17:30 Gwanganri beach BIPAF ZONE

Final Round May 11th(Sat) 17:00 Gwanganri beach BIPAF ZONE

(Attendance is free of charge and open to all)



BIPAF WORKSHOP BIPAF 워크숍

“연극, 세계적 연출가와 함께 내가 직접 만든다!
눈으로 보는 연극이 아닌, 몸으로 배우고 익히는 연극의 세계”

무대 위에서 살아있는 공연예술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배우의 자리! 전 세계의 실력 있는 유명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연극 메소드(method) 훈련을 실시하고 창작, 토론, 평가의 과정을 거쳐 직접 무대 위에서 발표회를 갖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

Internationally respected artists are invited to conduct physical theatre training for theatre professionals and children as part of this workshop. Trainees have a great chance to encounter the trainers' individual and innovative methods. Teams present their creation on the final day of the workshop.



기간 : 5.2(목)~11(토) 15시~18시(10일간)

발표회 : 5.12(일) 1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참가인원 : 성인(만18세 이상 일반인 및 전문가) 20명 이내



Schedule : May 2nd (Thu)~11th (Sat) 15:00~18:00 (10days)

Workshop Presentation : May 12th(Sun) 14:00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Target Participants : Less than 20 Adults

■ 초청강사 베르나르 소벨(Bernard Sobel)



베르나르 소벨(Bernard Sobel)은 현대 프랑스 연극계를 이끌어 온 연출가이다. 프랑스 연극계의 최고의 권위인 '리뷰 데아뜨르/퓨블릭'을 창립하고 대표로 활동 중이며, TV 감독 등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현존하는 브레히트의 계승자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2009 독일 괴테 훈장 수여, 프랑스 문화 훈장 코만더 수여.

Born Bernard Rothstein in the east of Paris in 1936, Sobel founded the Théâtre de Gennevilliers near Paris in 1963, which, in the ensuing forty years, chronicled world premieres and debut performances of plays by Brecht, Lessing, Heiner Müller, Christian Dietrich Grabbe and many others. Regardless of much criticism, Sobel was one of the first French directors of the post-war years to also present plays by German playwrights. His Brecht productions in particular again opened French audiences to German theatre. The French theatrical director Bernard Sobel received the Goethe Medal for his pioneering work in German-language theatre in France.

관객과의 대화 Q&A Session

배우와 관객이 만드는 소통의 시간!
주저 말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공연이 끝난 뒤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대화를 통하여 공연을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소통의 시간! 공연자와 관객의 만남의 장으로 공연예술문화에 대한 대중의 시각과 의견을 직접 확인해볼 수 있으며 공연자와 관객과의 진솔한 대담이 이뤄진다.

The precious chance for performers and audiences alike to gain valuable insight

Q&A Sessions give audiences an opportunity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performing arts at large as well as the nuances of specific performances by communicating directly with members of their creative team. Artists themselves prize these opportunities too! Audience reception is a key aspect to all performing arts, and getting this feedback helps artists understand how better to convey their ideas.

일자 Date	시간 Time	작품명 Performance	장소 Venue
5.4(토/Sat)	1800	파가니니 Papaganni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Man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1800	시네마테크 Cinématique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Haneulje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5.5(일/Sun)	1400	세상에서 제일 작은 개구리왕자 The Smallest Frog Prince in the World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1800	일그린 도시 Distortion City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Yeno Hall of Kyungsung Univ.
5.7(화/Tue)	2000	음악 Unak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2000	NAIF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Small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5.8(수/Wed)	1900	도우겐의 슬픈 연가 DOGEN AKA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Haneuljeon Theater of Busan Cinema Center
5.9(목/Thu)	2000	Chapter 6: 인생 Chapter 6: Life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Concert Hall of Kyungsung Univ.
5.10(금/Fri)	1800	Uglyman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Yeno Hall of Kyungsung Univ.
5.11(토/Sat)	1800	유령 Apparition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Medium Hall of Busan Cultural Center

BIPAF 강연회- 디지털(Digitalk) BIPAF Lecture- Digitalk



“공연 전, 기술진과 나누는 백스테이지 이야기”

부산국제연극제 강연회 디지털은 2013년 제10회 부산국제연극제의 콘셉트 'Digilog(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에 해당하는 작품(시네마테크), <도우겐의 슬픈 연가>, <유령> 관람 전, 기술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특별 강연회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 공연 예술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디지털에서는 관객과의 대화만으로는 부족했던 질문들을 공연전 기술

진들과 나누며, 작품을 더욱 깊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기존의 강연회가 펼쳐지는 딱딱한 강의 공간을 벗어나 열린 공간에서 진행, 편안하고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는 장이 되고자 한다.

Digitalk, a special lecture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provides an opportunity to talk to technical staff before the audience watch performances for 'Digilog (a meeting of digital and analog)' (Cinématique), <DOGEN AKA> and <Apparition>.

일자 Date	시간 Time	작품명 Performance	장소 Venue
5. 5(일/Sun)	1500	시네마테크 Cinématique	영화의전당 카페 테리아 Cafeteria of Busan Cinema Center
5. 9(목/Thu)	1600	도우겐의 슬픈 연가 DOGEN AKA	영화의전당 카페 테리아 Cafeteria of Busan Cinema Center
5. 11(토/Sat)	1500	유령 Apparition	부산문화회관 카페 Cafeteria of Busan Cultural Center

* 추후 장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he place can be changed.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
Busan Theatre Camp for Youth & Children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나!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와 겨울방학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는 다양한 연극적 방법을 통해 자유로운 사고와 무한한 상상력, 협동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사회성을 고취하고, 자신의 숨겨진 끼와 재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다.

Boys and Girls! Let's DIVE into the theatre world!

This camp is an opportunity to challenge ideas, spark imagination, develop teamwork skills,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and find undiscovered talents through these creativity-building and interactive theatrical programs.



■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

중·고등학생들의 전인적인 인격 성장과 진로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산 청소년 연극캠프는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후원으로 매년 여름 5박 6일의 합숙으로 진행되며, 참가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있다. 부산 청소년 연극 캠프는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느낄 수 있는 이성과 감성을 지닌 창의적이고 활동적인 세계적 인재로 성장하게 하는 예술 배움터로써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6월 중 모집 예정



■ Busan Theatre Camp for Youth

This camp is open to all current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 with an interest in theatre! Supported by Busan Education Office, this camp is free! This includes all costs associated with participating. Over the course of this camp's six days, participants hav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their career, future and identity and study the world of art and nature. *Application will be open in June

■ 겨울방학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

겨울방학 어린이 연극제작체험캠프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캠프다. 체계적인 교육 지도를 통해 창의력, 특히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박 4일간 진행되는 합숙 교육을 통해 협동심은 물론 함께 연극을 만들어나가는 재미와 표현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

*11월 중 모집 예정



■ Busan Theatre Camp for Children

Busan Theatre Camp for Children during the winter vacation is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the 3rd grade to the 6th grade. This provides an opportunity of learning to improve artistic sense and creativity.

*Application will be open in November



후원회 모집 BIPAF Sponsorship Association

부산국제연극제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합니다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는 공연예술문화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 나은 도약을 위하여 부산 국제연극제를 지지하는 분들의 뜻을 모아 2011년 4월, 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변치 않는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2013년에도 부산국제연극제와 함께 할 후원회 여러분을 모십니다. 작은 마음과 마음이 모여 지역문화예술의 힘이 될 부산국제연극제의 후원회는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립니다.

Please be a member of BIPAF Sponsorship Association!

April 2011, BIPAF organized a sponsorship association to help in sustaining the development and growth with support from people who love BIPAF. Thank you for your continued support and we are awaiting new members for 2013 BIPAF!

회원 분류 Type	회비 Fee	특전 Benefit
BIPAF YELLOW	월 10,000원(120,000원) 10,000won/month	개 · 폐막식 VIP 초청, BIPAF FRIENDS VIP 초청, 부산국제연극제 ID카드 제공, 기부금 영수증 발행 Invitation for Opening / Closing Ceremony Membership card of Sponsorship Association BIPAF ID CARD Receipt for donation
BIPAF GREEN	월 20,000원(240,000원) 20,000won/month	
BIPAF BLUE	월 30,000원(360,000원) 30,000won/month	
BIPAF RED	월 50,000원(600,000원) 50,000won/month	
BIPAF GOLD	월 100,000원(1,000,000원) 100,000won/month	

가입년도의 부산국제연극제 행사 기간부터 당년도 말까지 회원자격이 부여된다.
The membership lasts from the period of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to the end of the year.

2012년 도움을 주신 분들

Members of 2012 BIPAF Sponsorship Association

노봉호 님, 박병석 님, 박선희 님, 박정애 님, 박현진 님, 백현철 님, 신정일 님, 양동훈 님, 양소영 님, 이수태 님, 이지원 님, 이충엽 님, 장세영 님, 전석준 님, 김도기 님, 정대찬 님, 정부권 님, 정호연 님, 정희정 님, 최성락 님, 조영섭 님, 지미영 님, 최창근 님, 하연희 님, 홍연주 님, 김정순 님

■ 가입 방법 Application Process

홈페이지 - 커뮤니티 - BIPAF 후원회 -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접수
Homepage - Community - BIPAF Sponsorship Association - Download the application form - Fill in completely and submit

■ 접수처 Address

우편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65번길 6 (614-024)
E-mail bipaf@bipaf.org TEL 051-802-8003 FAX 051-802-8033
(부산은행 095-01-023216-9 예금주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
6, 165 ShinchunDaeRo, Jingu, Busan, Korea(614-024)
(Busan Bank 095-01-023216-9 /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President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Huh Namsik

감사 Auditor

방석진 [세무법인 창신] Bang Seokjin
신원삼 [법무법인 하늘] Shin Owsam

조직위원 Organizing Committee Members

이갑준 [부산광역시청 문화체육관광국장] Lee Kabjoon

임혜경 [부산광역시 교육감] Lim Hyegyong

남송우 [부산문화재단 대표] Nam Songu

성세환 [부산은행장] Sung Sehwan

송영명 [(사)한국예총 부산광역시지회장] Song Youngmyeong

고인범 [(사)한국연극협회 부산광역시지회장] Ko Inbeom

박태성 [부산일보 논설실 위원] Park Taesung

장병윤 [국제신문 논설실 위원] Jang Byoungyoon

허 은 [경성대학교 교수] Huh Eun

강남주 [前부경대학교 총장] Gang Namjoo

김용호 [영산대학교 문화산업대학 학장] Kim Yongho

박해란 [동서대학교 교양교육원 교수] Park Haeran

신일수 [국립예술자료원 원장] Shin Ilu

이문섭 [(사)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Lee Moonseop

최화수 [봉생문화재단 부이사장] Choi Hwasu

이용관 [(사)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Lee Yonggwon

손 숙 [前 환경부 장관] Son Sook

김정옥 [얼굴박물관 관장] Kim Jeongok

최주봉 [탈린트, 연극인] Choi Joobong

전성환 [원로 연극인] Jeon Seonghwan

박인환 [탈린트, 연극인] Park Inhwan

배 용 [디자이너] Bae Yong

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명예회장] Shin Jungtaek

이용흠 [일산설계 회장] Lee Yongheum

김재선 [김재선갤러리 대표] Kim Jaeseon

명예집행위원장 Honorary Festival Director

김동규 [명예집행위원장] Kim Dongkyu

집행위원장 Festival Director

허 은 [경성대학교 교수] Huh Eun

집행위원 Festival Committee Members

이종근 [동서대학교 교수] Lee Jonggun

김남석 [부경대학교 교수] Kim Namseok

김재우 [부산경상대학교 교수] Kim Jaewoo

손병태 [부산예술대학 연극과 학과장] Son Byungtae

권 철 [배우] Gwon Cheol

김익현 [극단 도깨비 대표] Kim Ikhyun

이정남 [극단 맥 대표] Lee Jungnam

자문위원 Advisory Committee Members

전성환 [극단 전위무대 대표] Jeon Seunghwan

허영길 [극단 사계 상임연출] Heo Younggil

권명준 [극단 예사당 대표] Gwon Myungjun

이성규 [부두연극단 대표] Lee Seonggyu

박원철 [부산문화회관 공연과장] Park Woncheol

김문홍 [원로 연극인(극단 한새별)] Kim Moonhong

프로그래머 Programmer

손병태 [부산예술대학 연극과 학과장] Son Byungtae

사무국 소개 Introduction of BIPAF Office

- General Director **사무국장** 이현빈 Lee Hyunbin
 General Affairs Manager **총무팀장** 손수연 Son Suyeon
 General Affairs Coordinator **총무팀 스텝** 이송이 Lee Songyi
 International Affairs Coordinator **대외협력팀 스텝** 장나윤 Jang Nayoon
 Planning Manager **기획팀장** 남현주 Nam Hyunju
 Planning Coordinator **기획팀 스텝** 한수용 Han Suyong
 Ticket Coordinator **기획팀 티켓 스텝** 황영란 Hwang Youngran
 PR Coordinator **기획팀 홍보 스텝** 안소정 An Sojeong
 Events Manager **행사진행팀장** 박재현 Park Jaehyun
 Events Coordinator **행사진행팀 스텝** 박종락 Park Jongrak
 Video Coordinator **행사진행팀 영상 스텝** 전대웅 Jeon Daewoong
 Events Manager **행사운영팀장** 이민호 Lee Minho
 Events Coordinator **행사운영팀 스텝** 전은실 Jun Eunsil
 Technical Director **기술감독** 탁현진 Tak Hyeonjin

자원봉사자 & 어린이 홍보대사 Volunteer & Young Ambassador

- | | | | |
|--------------------|-------------------|--------------------|--------------------|
| 총무팀 | 임녹영 Im Nokyoung | 안수진 Ahn Sujin | 신정현 Shin Jung Hyun |
| 총무 | 김채현 Kim Chaehyun | 문예림 Mun Yelim | 길병찬 Gil Byeongchan |
| 강민주 Kang Minju | 황아람 Hwang Aram | 박철순 Park Chulsoo | |
| 김정미 Kim Jeongmi | 성지은 Seong Jieun | | |
| 김기환 Kim Gihwan | 최은영 Choi Eunyoung | | |
| 박경림 Park Kyungrim | | 의전 | |
| 이영준 Lee Youngjun | | 윤정래 Yoon Jeonglae | |
| | 팀코디 | 김상우 Kim Sangwoo | 무대지원 |
| | 이왕수 Lee Wangsoo | 구홍서 Koo Hongseo | 김미영 Kim Miyoung |
| | | | 조현정 Jo Hyunjung |
| 대외협력 | 홍보팀 | 영상 | 이민경 Lee Minkyung |
| 배경덕 Bae Gyeongdeok | 홍보 | 공은옥 Kong Eunok | 정성균 Jeong Sunggyun |
| 신영주 Shin Youngjoo | 박진호 Park Jinho | 김도영 Kim Doyoung | 엄태남 Um Taenam |
| 조성재 Jo Sungjae | 이대솔 Yi Daesol | 강승현 Kang Seunghyun | 조아람 Cho Ahram |
| 전혜진 Jeon Hyejin | 배익형 Bae Ikhyeoung | 주별희 Ju Byeolhui | 이영호 Lee Youngho |
| 김병민 Kim Byungmin | 김정원 Kim Jeongwon | 라영수 La Youngsu | 문동학 Moon Donghak |
| 장유리 Jang Youri | 변혜란 Byeon Hyeran | | |
| 박수선 Park Susun | 김명운 Kim Myungyun | 어린이 홍보대사 | |
| 김효은 Kim Hyeoun | 심규예 Sim Gyuye | 박소민 Park Somin | |
| 강세리 Kang Seri | | 이혜원 Lee Hyewon | |
| 박성하 Park Sungha | 행사진행팀 | 박시연 Park Siyeon | |
| | 행사진행 | 홍연재 Hong Yeonjae | |
| | 배지혜 Bae Jihye | 이수정 Lee Sooljung | |
| | 채소영 Chae Soyeong | 박관호 Park Gwanho | |
| | 민혜진 Min Hyejin | 이유영 Lee Yuyoung | |
| | 윤현 Yoon Hyun | 임하연 Lim Haeyeon | |
| | 박대호 Park Daeho | 노은지 Noh Eunji | |
| | 박현희 Park Hyunhee | 진민규 Jin Mingyu | |
| | 박선희 Park Sunhee | 박서윤 Park Seoyoon | |
| | 홍수경 Hong Sukyung | 정희윤 Jeong Heeyoon | |
| | 정소희 Jeong Sohee | | |



ONLY FOR YOU

새로운 삶의 패턴이 형성된 부산 해운대 센텀시티
 쇼핑, 관광, 문화, 비즈니스 그 중심에
 해운대센텀호텔이 있습니다.



Enjoy Busan in Haeundae Centum Hotel



편리한 교통과 다양한 볼거리,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과 만나는 센텀호텔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백스코, 부산시립미술관, 대형할인마트와 각종 영화관, 세계 최고의 쇼핑센터까지!
 파스한 봄날, 아름다운 봄바다가 있는 부산에서 해운대센텀호텔을 만나보세요!

bt 부산관광공사



Busan Youth Hostel
ARPINA



▲ Room ▲ Banquets ▲ Seminar Room ▲ Sports center ▲ Golf r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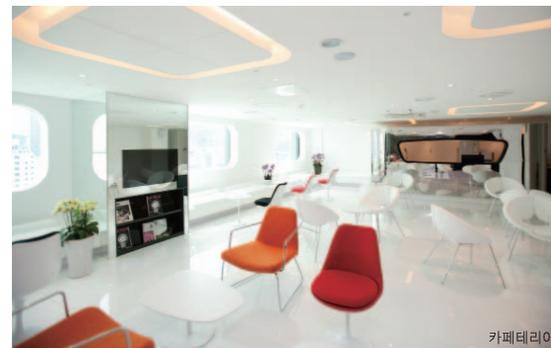
Tel:051)731-9800 Fax:051)740-3225 Reservation:051)740-3228 www.arpina.com

깨끗하고 선명하게
누네빛 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라식/라섹/백내장



검안실



카페테리아



프론트

진료실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대로 772 051.810.5678
롯데호텔 14F www.nunevit.com

light for your eyes 당신의 눈에 빛이 되겠습니다.

부산 국제 연극제를
응원합니다.

light for your eyes



누네빛 안과 롯데호텔 14F

- + 58여가지의 필수검사**
누네빛안과에서는 50가지 이상의 복수검사를 시행하여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장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개개인의 꼭 맞는 안전한 시력교정술**
첨단 교정술로 여러분의 눈 특성에 꼭 맞는 시력교정술을 실시하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네빛안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우수한 의료진이 당신의 눈에 빛을 드리겠습니다**
누네빛안과는 실력을 인정받은 믿을 수 있는 의료진들이 눈에 빛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